

KMU
NEWS

秋

계명대학교 소식
2010.VOL.54 Keimyung University News



계명대학교
KEIMYUNG UNIVERSITY

KMU Spirit

- 04 Special Issue I / 2010 아쿠카(ACUCA) 국제회의,
그 현장을 가다
- 08 Special Issue II / 계명대를 찾아온 세계 대학 공자아카데미 회의
- 10 두드림 / 적군의 방패 위에 꽃 한 송이 꽃듯이 /
제18대 국회의원 조문환(의학79) 동문
- 12 동문 CEO / 열정을 꽃 피우는, 기업 재무 전문가 /
아이마켓코리아 상무 안종환(회계학77) 동문
- 14 시선 집중 / 계명대 벤처창업보육사업단
- 16 New Face / 재즈, 피아노, 그것은 나의 인생 /
뮤직프로덕션과 남경윤 교수

KMU IN & OUT

- 18 기자가 본 계명 / 편안한 휴식처 같은 내 마음의 캠퍼스 /
매일신문 이재협 기자
- 20 It's new / 2010 · 2011년 신설 학과를 소개합니다
- 22 레드카펫 / 무인 자동차, 우리 손에 있소이다 -
'제 1 회 자율주행 자동차 경진대회' 본선 진출팀!
- 24 Global 계명 / 나는야 뉴욕의 즐거운 세일즈맨
- 26 그들이 궁금하다! / 바퀴를 사랑한 공부벌레, '바퀴벌레' /
2010 글로벌 캐스트 공모전 은상 수상팀
- 28 Global 계명 / '1석 3조' 복수학위제

Culture Story

- 30 대구 문화 읽기 / 근대 대구 풍경을 찾아서 ① 동산에 오르다
- 34 도시와 예술 / 동성로를 세계의 예술 거리로!!
- 36 계명의 향기 / 한 잔의 차로 나를 돌아보고, 이웃과 함께
행복을 나눕니다 / 차명상 동아리 '등지'
- 38 문화 산책 / 계명아트센터 공연 / 계명인이 낸 새 책

Zoom in KMU

- 40 KMU Brief News
- 44 동산의료원 소식
- 46 모교 사랑 / 발전기금 조성 안내



A photograph of two young women walking up a wide set of stone steps in a lush, green park-like setting. The woman on the left is wearing a black jacket and holding a white folder, while the woman on the right is wearing a green jacket and holding a blue folder. They are both looking towards each other and smiling. The background is filled with tall trees, some with yellowing leaves, suggesting an autumn setting. The overall atmosphere is bright and pleasant.

가온

여기, 이름 아세요?

계명대학교 성서 캠퍼스 안에
아담스 채플과 계명한학춘을 잇는 새로운 길이 생깁니다.
그 이름은 바로 '가온길'입니다.

'가온'은 '중심, 가운데'를 뜻하는 순수 우리말입니다.
'가온길'이라는 이름에는 우리 학생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
정직하고 바른 가운데 길로 나아가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계명한학춘과 아담스채플을 오가며
동양과 서양을 잇고, 과거와 현재를 올곧게 이어 가는
계명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은 불러주는 이의 마음이 담깁니다.
당신의 마음을 담아 '가온길'을 많이많이 불러주세요.

2010 아쿠카 국제회의, 그 현장을 가다

21세기 전 인류의 화두가 ‘환경’에 무게를 두는 있는 가운데 아시아내 기독교대학들이 대안을 찾아보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보호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아시아 우수 대학 총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 열띤 현장을 스케치해본다.

ACUCA

지난 11월 1일(월)부터 3일(수)까지 아시아 7개국 40여개 대학 총장들이 계명대학교를 찾아 아시아 지역 기독교대학 연합인 ACUCA(Association of Christian Universities and Colleges in Asia) 국제회의 및 제18회 총회가 이곳에서 열렸다.



이번 국제 회의는 '아시아 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 이란 공통 주제로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필리핀, 대만, 태국 등 7개국 40여개 회원 대학의 총장, 학장, 교육실장, 대표단 등 ACUCA 관계자 약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1일(월) ACUCA 상임이사회와 11월 2일(화) 개막식을 시작으로 기조연설, 분과별 토론, 분과토론 결과 발표, 총회 및 폐막식 등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개막식에 이은 기조연설에서는 타이완 창중대학(Chang Jung Christian University)의 Huang Po Ho 부총장이 '아시아의 환경 위기와 고등교육에 대한 그의 도전' 이라는 주제로 생태적 위기에 끼친 기독교의 역할과 지금의 생태위기에 대한 기독교 대학들의 임무와



04
05

책임에 관해 연설을 했으며, 인도네시아의 소예기자프란타 천주교 대학교(Soegijapranata University) Budi Widianarko 총장은 '지속발전가능한 아시아를 위한 고등교육기관' 이라는 주제로 전 지구적 기후변화와 그로인해 파생되는 생태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친환경적 기독교연대(Eco-friendly Christian Solidarity)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조연설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독교인들의 선도적 역할에 대한 분과별 토론이 이어졌다.



01
02
03



한편, 계명한학촌에서는 이번 회의에 참가하는 해외 회원교 대표단을 대상으로 부채춤과 널뛰기·윷놀이 등 한국 전통문화 체험 행사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오페라의 유령 관람, 상공 회의소 회장 주재 만찬 등을 통해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구대회 같은 국제 행사를 앞두고 있는 대구의 높아진 위상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일희 ACUCA 회장(계명대 총장)은 “ACUCA는 매년 회원교의 주요 관심사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데 이번엔 환경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아시아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대학에서 실천 가능한 다양한 환경운동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CUCA는 아시아 지역 유수의 기독교대학들이 국제화 시대에 기독교대학의 사명을 다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1976년에 설립되어 회원대학간 교수, 학생들을 위한 다양하고 유익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아시아 지역 7개국 55개 기독교대학 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교환학생 프로그램, 학생 교류 캠프, 총회, 상임이사회 개최 등의 주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계명대는 1996년에 이어 다시 ACUCA의 회장교로 선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계명대, 서강대, 숭실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남대, 전주대, 호서대, 한동대 등 9개교가 회원교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 앞서 지난 7월 19일(월)부터 23일(금)까지 나흘 간 계명대 곳곳에서 열린 '아쿠카(ACUCA)학생캠프'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대만, 태국 등지 50여 개 대학교 학생과 'The Earth: Our Choices, Our Actions and Our Impact'란 환경에 관한 주제로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또한 계명한학촌에서 한지공예와 닥종이 인형 만들기, 태권도 배우기 등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국가별 전통의상과 전통무용 한마당을 통해 화합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다국적 캠퍼스를 조성하고 있는 계명대는 지역대의 한계를 벗어나 성공적인 특성화 프로그램과 장학제도로 점점 세계인과 함께 하는 국제 대학이 되고 있다.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가 세운 대학답게 설립 때부터 현재까지 활발한 국제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한강 이남 최고 수준인 45개국 226개 대학·기관과 자매 결연을 맺고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다. 2010년 현재 계명대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은 대략 1,300명.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 폴란드, 모로코, 앙골라, 중국, 일본, 라오스 등 36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세계가 주목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고 있다.

06
07

ACUCA

01. 계명한학촌 투어중 널뛰기 등의 전통문화 체험행사가 열렸다.
02. 지난 7월, 환경을 주제로 한 ACUCA학생캠프에서 재활용품을 이용한 실습활동이 진행됐다.
03. 제18회 ACUCA 총회
04. 신일회 ACUCA회장(계명대 총장)이 차기 회장에게 ACUCA기를 전달하고 있다.
05. 아시아 회원교간의 학생 및 교수교환 프로그램 개발 논의를 위한 분과회의





10월 4일(월)부터 6일(수)까지 계명대 성서 캠퍼스에서는 ‘세계 대학 공자아카데미 회의(Pan-Confucius Institute Conference)’가 열렸다. 중국 북경어언대학과 공동으로 연 이번 행사에는 중국,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루마니아, 일본 등 10개국 14개 대학 총장 및 공자아카데미 관계자 80여 명이 대거 참석하여 ‘공자아카데미 국제 협력 발전의 새로운 패턴’에 대해 논의하였다.

10월 4일(월) 개막식을 시작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본회의, 원장 경험 교류회의, 원장 봉임토의, 교육문화 전시, 문화탐방 등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최상호 계명대 부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개막식에는 공자아카데미 총부의 서강 부처장이 중국 공자아카데미 총부의 허림 주임을 대신하여 축사를 대독하였으며, 관화병 주부산중국총영사, 애호가 주한중국대사관 교육참사관, 우동기 대구광역시 교육감, 남동균 대구광역시 부시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왕로강 북경어언대학 교무위원회 주임(한국의 경우, 법인이사장급)은 '동질성 추구하고 다양성의 인정 - 세계화 속에서의 공자아카데미 협력 발전'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를 하였다.

둘째날 본회의는 Joy Hughes 미국 조지메이슨 대학(George Mason University) 부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공자아카데미 국제협력 발전의 새로운 구도'라는 제목으로 신일희 계명대 총장이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이어서 Harris Pastides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University of South Carolina) 총장, Aziz Ahmad Khan 파키스탄 국립외국어대학(National University of Modern Languages) 총장, Elizabeth Stroble 미국 웨스턴대학(Webster University) 총장, Yoshitaka Tanimoto 일본 관서외국어 대학(Kansai Gaidai University) 총장, Mark Becker 미국 조지아주립대학교(Georgia State University) 총장 등이 각각 발표하였다. 회의 언어는 중국어와 영어가 사용되었다.

회의장에는 교육문화 전시(Educator's Fair)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모든 참가 대학들이 자국

의 전통문화와 학교를 소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물들을 전시하고 상호 교환하는 시간도 가졌다.

계명한학촌에서는 이번 회의에 참가하는 외국 대학 총장 내외를 대상으로 놀림꽃공예, 매듭공예, 전통차 시연 및 시음 등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 할수 있는 행사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날 저녁 한학촌에서 펼쳐진 한국문화공연은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흥겨운 화합의 한마당이 되기에 손색이 없었다.

마지막 날 진행된 폐막식에서는 이번 회의에 참가한 15개 대학이 공동으로 '교육협력 의향서'를 체결함으로써 향후 참가 대학 간 교육과 연구 및 기타 영역에서의 교류협력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계명대 공자아카데미는 중국 내에서 국제 교류 및 공자아카데미 부문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북경어언대학을 파트너 대학으로 하여 대구·경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중국어 교육, 중국문화 공연, 중국 장학생 선발 및 파견

등을 통하여 한국과 중국 양국의 학술·문화 교류와 우호 증진을 위한 민간 교류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박용진 계명대 공자아카데미 원장은 "이번 회의는 중국 북경어언대학 주관 세계 공자아카데미 회의 사상 처음으로 파트너 대학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공자아카데미 운영 대학간 교류 협력



증진뿐만 아니라, 참가 대학과의 다양한 교류협정 체결을 통해 학생, 문화, 학술 영역에서 다양한 국제교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입학 당시, 내가 기억하는

계명대학교 모습

의과대학 건물도 없는 상태에서 신생 의과대학 허가를 얻어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힘찬 도약을 준비하던, 작지만 내실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좋아하던 학교 건물은 당연히 미대 건물. 새내기들엔 예쁜 여학생들이 많은 건물이 당연히 인기가 많았지요. 그래서 별로 친하지도 않던, 미대 다니는 고등학교 동기를 만나러 온 척하고 부지런히도 미대 건물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

나를 이끌어준 사람

가정의학과에서 이제는 퇴임을 하신 신동학 교수님. 개인적으로 친구 고모이자, 의과대학을 다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방향하던 시절에 어머니 같이 저를 다잡아 주신 분입니다. 지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모교는 나에게 삶의 원천이자 힘!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고향으로 하고 죽는 것에서 수구초심(首丘初心)이란 말이 있습니다. 저에게 모교란 언제나 고향 같은 곳입니다. 당시에는 계명대가 소위 말하는 일류대가 아니라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각을 뛰어넘겠다는 의지가 지금의 강한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모교란 나에게 “삶의 원천이자 힘이며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곳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 시절, 기억에 남는 제자

전임강사가 되고 3~4개월 지났을 때인데 누가 연구실 문을 두드려 열어보니 지도학생이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물어보니 그 친구 대답이 “이제 몇 개월 지났으니 술 한 잔 사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 라는 거예요. 당시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러웠는지 그 당시 우리들은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는 말을 당연시하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학생 말은 학생지도비 몇 개월 모였으니 돌려달라는 뜻으로 들리더라고요. 얼마 길지 않은 교수생활이었지만 그런 돌발적인 제자 모습에 “고정관념에 젖어 있으면 안 된다.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는 것을 배웠지요.

국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국가안보와 경제 발전을 주로 요구하던 국민들이 이제는 문화, 건강, 복지 등의 국민 안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선진화에 성공하면 우리는 통일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동북아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국민들의 보건, 복지에 대한 요구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가 사람의 생명유지를 위해 병을 치유하고 건강을 유지하듯 국회의원은 법과 제도를 이용해 사회와 국가가 건강성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과정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건강한 사회와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란 목표는 같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이 법과 제도라는 틀을 이용해 환자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후배들에게 한 말씀...

방패 위에 장미를!

나 아니면 틀렸다는 극단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요즈음 우리 사회현실을 보면 ‘장미꽃 한 송이’로 상징되는 옛 사건을 자주 회상하게 됩니다. 격렬한 반전 시위와 흑인 인권 운동이 있었던 1960년대 미국에서 극한 대치를 하던 진압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서 시위대를 벗어난 한 중년의 어머니가 경찰 방패 위에 한 송이 장미꽃을 꽂습니다. 순간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는 원지 모를 잔잔한 감동과 함께 전율로 인한 침묵이 찾아옵니다.

한 송이 장미꽃은 월남전에서 자식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쓰라린 사랑이 담긴 상징이었으며, 그 마음이 진압 경찰까지 남아 아닌 우리들의 아들·딸로 부둥켜안기에 이릅니다.

이 사건은 극한 대치 상태를 평화적, 합법적 시위로 전환케 함은 물론 마침내 전 세계 양심을 감동시켜 미국의 베트남 철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편과 저편을 나누는 논리가 아니라 둘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이를 뛰어 넘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시심(詩心)이 바탕이 될 때 진정한 의료인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적군의 방패 위에 꽃 한 송이 꽃듯이

서로를 인정하고, 감싸 안으세요

조문환 의원 / 의학과 79 학번



1984년 삼성에 입사한 뒤, 대학에서 배운 회계학을 바탕으로 20여 년을 한결같이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며 성공가도를 달려온 안종환 동문. 제일모직 경리과장, 재무팀장을 거쳐, 삼성문화재단 외 4개 재단의 총괄 사무국장을 역임했으며, 삼성에버랜드 E&A사업부에서 지원 담당 상무를 지냈고, 올해 1월부터는 삼성그룹의 공식 물품조달 창구 역할을 하는 아이마켓코리아에서 구매 총괄 업무를 맡고 있는 그를 만나 그의 인생관과 대학 시절 갖추어야 할 것, 사회인으로서의 자세 등을 들어 보았다.

열정을 꽃 피우는, 기업 **재무 전문가**

진인사대천명 /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회계학, 꿈의 밑그림을 그린다

어려서의 꿈은 훌륭한 건축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건축업을 하시면 아버지를 따라 여러 현장을 돌러보면서 나도 맛있는 건축물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자 생각이 바뀌었어요. 기업에 취업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지요. 기업은 사람, 돈, 기술이 결합된 곳으로, 그 중에서도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기업에서의 핵심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이를 다룰 수 있는 회계학을 전공으로 선택했습니다.

생각을 키우는 힘, 토론과 발표 수업

우리가 회계학과 1학년 처음에는 16명으로 시작했어요. 3학년 때는 12명, 4학년 때는 8명이 재학하고 있어서 전공 필수 수업 시간에는 교실에서 하지 않고 교수님 연구실에서 토론, 발표 위주로 수업했어요. 미리 공부를 하지 않고는 참석이 불가능할 정도여서, 이 때 전공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특히, 학과장이셨던 정기영 교수님은 졸업 후에도 여러 가지 상담을 계속해 주셨고, 학생들 진로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셨습니다. 학생들 실력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기숙 교수님, 정기영 교수님은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 입사, 꿈의 터전을 닦다

졸업 후 1984년, 삼성에 입사했습니다. 제일모직 구미공장 경리과에서 사회 첫발을 내디뎠죠. 지금은 많은 업무가 전산화되었고, 그 처리 속도도 광속에 가까울 정도로 빨라졌지만, 그 때는 수작업이 무척 많았고, 전산 처리 속도도 매우 늦었어요. 거의 매일 밤을 새웠지요. 또, 제일모직 구미경리과에서 원가계산 업무를 담당할 때는 매월 초, 4~5일을 대구와 구미를 왔다갔다하면서 거의 잠도 안 자고 월말 마감 업무를 처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했을까 싶은데, 그때의 노력 덕분에 오늘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음에 새긴 말 한마디

저의 생활 신조는, 어떻게 보면 좀 고리타분하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입니다. ‘내가 할 도리를 최선을 다하여 하면, 그 결과 또는 보상은 하늘이 내린다’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매사에 충실하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에 있기까지 어떤 노력?

매사에 최선을 다하면 적어도 다음 자리까지는

승진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각 단계별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만약 내가 다음 단계로 승진한다면 어떻게 업무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고, 승진 후에는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특히, 주어진 업무는 남보다 더욱 완벽히 처리하여, 상사가 역시 나에게 맡기기를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했으며, 간부 시절에는 부하 직원들에게도 나와 같이 근무한 시기가 좋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업무를 지도하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우선 자기 전공 분야에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영어는 요즘 필수이기에 꾸준히 준비를 해야 하구요. 특히, 현대사회는 융·복합화 사회로 전공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도 알아야 합니다. 학창시절에 경제신문 하나를 매일 정독하여 이에 대한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회사를 선택하더라도 본인의 노력 자세가 중요하기에 너무 대기업만 고집하지 말고, 중소기업도 고려해 보십시오. 특히 국제화된 요즘은 외국에도 일자리가 많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한 만큼 인생은 즐겁다!

후배 여러분! 세상은 넓고, 여러분들은 젊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음은 돌아보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기에 젊음 시절, 미래에 대해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준비된 만큼 인생은 즐길 수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 주는 것도, 준비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신만이 해야 합니다.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책임진다는 자세로 준비하세요. 낭비하지는 않되, 젊음을 즐기면서 말입니다!

안종환 동문

회계학과 77학번

아이마켓코리아 상무



계명대 벤처창업보육사업단

올해 들어 청년 기업인을 뽑는 대회에서 계명대학교 학생들이 속속 그 실력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청년 실업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이 많은 요즘,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이미 자신의 아이디어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사람들. 그 뒤에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계명대 벤처창업보육사업단. 그들이 이룬 성과는 무엇이며, 그곳은 또 어떤 곳일까?



중소기업청과 (사)창업진흥원이 우수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려고 개최한 '2010 중소·벤처 창업경진대회' 일반기술 분야에서 경영학과 박재영 학생(02학번, 라이너스 대표)이 부문 통합 최우수를 차지해 중소기업청장상과 상금 2천만 원을 받았고, 기계자동차공학부 김정호 학생(04학번)은 장려상과 상금 3백만 원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2010년도 대한민국창업대전'에서는 산업디자인과 박병규, 진준호 학생 팀이 제품 디자인 분야 대상을 받아 중소기업청장 상장과 상금 8백만원을 받았다. 또한 경영학과 김대건(04학번, CL대표)은 전세계 미래기업가들의 글로벌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해 아이슬란드에서 개최된 2010 MIT GSW(Global Startup Workshop)에 15명 규모의 우리나라 참가단에 선발되기도 하였다.

대구·경북 최초의 창업보육센터

이러한 성과를 이룬 계명대 벤처창업보육사업단은 1998년 6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대구·경북1호 창업보육센터로 지정받았다. 2008년에는 중소기업청 BI 운영평가에서 8년(2001~2008) 연속 최우수(S) 등급을 받았으며,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에서 대구·경북에서는 유일하게 총 10회 중 9회 최우수, 1회 우수의 성적을 받았다.

학생들을 생각한 창업 지원 활동 강화

2009년부터는 매년 창업강좌 특강 및 청년 기업이 제품·기술을 전시하는 창업 로드쇼를 열고, 창업멘토링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9 창업 동아리 우수 아이템 개발 지원사업, 중소기업청 '예비기술 및 실험실 창업육성사업'에 선정된 창업자 29명(대구·경북 1위) 중 재학생 및 졸업생 13명이 선정되는 등의 지원 사업을 벌였다. 그리고 올해는 '중소기업청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에 창업자 23명(대구·경북 1위)이 선정되어 그 중 재학생 6명에게 정부 창업 지원금 2억 3,2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 처음 실시된 중소기업청 대학생 창업지원단 사업에 대구 지역 선도대학으로 뽑혀 17개 대학생 창업 동아리를 육성 중이다. 또 성공한 동문 CEO와 만남의 장을 가지고, 창업 동아리와 기업을 1대 1로 연계하는 Biz doctor 제도를 도입했으며, 청년 창업을 돕는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쟁력 갖춘 청년 실업가를 키운다!

김현수 벤처창업보육사업단장은 "벤처창업보육사업단 전체 입주기업 중 계명대 출신 CEO가 43.7%, 학생 기업이 31.2%, 입주기업 직원 중 계명대 졸업생이 38.4%" 라면서 "이제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계명인들이 창업하거나 취업할 때, 실속 있는 지원 활동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갖춘 청년 실업가를 키워나갈 계획" 이라고 한다.

또한 "이곳 계명대 벤처창업보육사업단센터는 대학의 기술과 인력, 정부와 지자체의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립되었다" 며, 창업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일반인이거나 학생이거나 상관 없이 얼마든지 상담과 지도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의 : 053-620-2035

((청년 기업가들이 말하는 창업 노하우))

- 01 **자기가 아는 데서 시작하라.** 경험이 없으면 실패하기 쉽다. 자기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분야, 잘 알고 있는 것에서부터 경험을 쌓고 지식을 활용하라.
- 02 **정보는 나의 힘, 모을 수 있는 만큼 모으라.** 인터넷과 신문, 각종 창업 강좌를 통해 최대한 정보를 수집하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창업 아이템, 전망 직종도 눈여겨 보자.
- 03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기대치를 알맞게 잡아라.** 창업 자금분 아니라 운영 자금도 생각해야 한다. 수익만 따지지 말고 실행 가능한 목표치를 정해 차근차근 단계를 밟자.
- 04 **약은 약사에게, 상담은 전문가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혼자서 다 하려고 해서는 곤란하다. 잘 모르는 것은 전문가와 의논하자.
- 05 **자기 몸은 자기개! 건강이 최우선!** 일에 빠져서 잘못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날마다 운동하고, 자신을 체크하자.

김현수
벤처창업보육사업단장



재즈, 피아노, 그것은 나의 인생

마음을 설레게 하는 재즈 선율의 매력처럼 끊임 없는 열정으로 자신의 꿈을 찾아 온 젊은 예술가가 있다. 뉴욕 코넬대학교와 미시간대학교, 맨해튼음악대학원에서 재즈를 전공하고, 재즈 메카로 손꼽히는 뉴욕에서 그 실력을 인정 받아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재즈피아니스트 남경윤. 이번 가을 학기부터는 계명대 뮤직프로덕션과에서 학생들과 호흡을 맞추고 있는 그를 만나 보았다. 소심하고 말이 없던 ‘왕따’ 소년이 세계가 주목하는 차세대 ‘음악가’ 가 되기까지 그가 들려주는 음악 이야기, 인생 이야기

“음악은 빛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미국 뉴욕으로 갔습니다. 엄마와 형이 있었지만, 중학교 시절은 너무도 외롭고 힘들었어요. 말이 통하지 않는 이방인들 속에서 친구도 하나 없이 쓸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기를 수개월, 하루는 이모님 댁에 놀러갔다가 키보드를 보았어요. 30키짜리 자그마한 키보드였죠. 그걸 잡는 순간, 초등학교 1학년 때 잠시 하다 말았던 피아노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왜 나는 그 동안 안 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둡고 팍팍했던 생활 속에서 키보드는 저에게 빛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쉬지 않고 연습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좀더 큰 키보드가 갖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를 졸랐더니, 어머니는 저에게 숙제를 주셨어요. “오디션에 통과해라! 완전하게 한 곡을 연주해 내야 해”. 저는 꿈을 이루기 위해 잠을 아껴가며 곡을 완성했고, 어머니는 약속대로 66개 건반 키보드를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뒤, 저는 또 한번 ‘엄마 오디션’을 치렀습니다. 저는 베토벤의 ‘월광’을 멋지게 연주해냈고, 드디어 제가 그렇게 바라던 88개 건반 키보드를 갖게 되었습니다.

‘말 없던 아이’에서 ‘친구들의 스타’로

그러는 사이,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1년 남짓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이들은 더 이상 저를 ‘병어리’라고 놀리지 않았습니다. 고 1이 끝나갈 무렵, 합창반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이 생기고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친구들과 락밴드를 만들어 콘서트를 열고, 뮤지컬 반에 들어가 배우 역할도 해보았습니다. 졸업할 즈음에는 쟁쟁한 후보들 사이에서 100여 명 되는 합창단원들이 직접 뽑아주는 합창단장에도 뽑혔고, 직접 지은 곡으로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여 학교에서 주는 최고상인 ‘올해의 예술가상’도 받았습니다.



남경윤 교수 / 뮤직프로덕션과

☆☆☆

남경윤 교수가 추천하는, 로맨틱하면서
가을에 듣기 좋은 재즈 곡

- * Autumn Leaves
- * All the things you are
- * In your own sweet way
- * For Heaven's sake

‘전자공학도’에서 ‘재즈피아니스트’로

공부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부모님 가르침에 하루가 정말 빠듯했습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정규 수업을 마치면 나머지 시간을 쪼개 수학기대 스터디를 하고, 뮤지컬 연습을 하고, 배구와 축구도 했으니깐요. 하루 24시간을 아껴가며 공부했고 피아노를 쳤지요. 그리고 드디어 대학에 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전공은 피아노가 아닌 전자공학이였어요. 안정된 직장을 얻어 편히 살기를 바라는 부모님 뜻을 따른 선택이었지요. 그렇다고 피아노를 그만 둔 것도 아니었습니다.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에 올라가면서 저는 부모님께 ‘음악을 하겠노라’ 일방적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음악과로 편입을 했어요. 아이비리그 대학들 가운데 하나인 코넬대는 과제도 무척 많았지만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과 프로그램도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밴드를 만들 수도 있었고, 기숙사에는 24시간 연습할 수 있는 방음 연습실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평소에 늘 말씀하셨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나 특기를 찾아서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최선을 다해라.” 그 말에 따라 저는 밤잠을 아끼며 연습에 또 연습을 더했습니다.

16
17

세계 뮤지션과 어깨를 나란히

재즈피아노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건 대학 1학기 말입니다. 재즈피아노 독주회에서 선배가 연주하는 걸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때와 장소에 따라 자기 뜻대로 늘 새로운 곡을 만들 수 있고, 다른 뮤지션과 어울려서 이루는 그 무한한 ‘자유’가 정말 좋았습니다. 대학에서는 소규모 연주회 형식의 오픈 카페를 신청해서 기회가 닿는 대로 연주했고, 대학원에 가서는 각종 재즈 클럽에 가서 다른 재즈 뮤지션과 어울려 연주를 하며 오픈 잼세션(jam session) 리더로 뽑혀 1년에 무려 300회 가까이 콘서트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2005년에는 미국 유명한 레코드 회사에서 제 이름을 단 음반을 내게 되었고, 지금까지 네 장의 앨범을 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100% 표현하세요!”

선배 음악가가 이런 말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남 탓을 하기 전에 네가 100%를 주어라. 네가 가진 것을 명확하게, 확실하게 나타내도록 해라.” 그 말은 곧 흐지부지하지 말고 네 색깔을 분명히 표현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제가 가진 게 100%가 아니고 완벽하진 않지만, 남을 믿고 완성을 위해 노력하다 보면, 그 자신감 있는 모습에 남들도 저와 함께 하고 싶어질지도 모르지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충분히 한번 표현해 보세요.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남경윤 교수, 그가 있는 계명대 뮤직프로덕션과에서는 크게 연주와 사운드, 실용작곡과 편곡을 공부한다. 기타, 보컬, 베이스, 드럼, 피아노 등 실용 음악 악기를 더 잘 다루는 법도 배우고, TV나 영화 음악, CF 음악을 만들어서 대중에게 다가가는 법도 배운다. 졸업을 하면 녹음실과 음향스튜디오 같이 사운드가 필요한 기관이나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사운드를 디자인할 수도 있고, 음악기획사에서 일을 할 수도 있다.

정원은 120명 남짓.

편안한 휴식처 같은 내 마음의 캠퍼스



‘아담한 빨간 벽돌 건물’

계명대하면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다. 옛 대명동 캠퍼스도 그랬고 성서 캠퍼스도 그렇다.

잘 꾸며진 조경을 배경으로 세워진 빨간 벽돌 건물은 ‘인공’이란 생각을 머리에서 지우게 한다. 또 현란한 콘크리트 건물에 피곤해진 눈을 맑게 해주는 청량제 역할을 한다.

올 초 대학 담당을 하면서 한동안 일상에서 사라졌던 캠퍼스를 찾을 일이 많아졌다.

매일 반복되는 기사 마감과 약속, 끊임없이 울려대는 핸드폰 진동에 익숙해진 나에게 대학 캠퍼스는 잠시나마 피곤함을 잊게 하는 장소가 됐다.

그리고 많은 대학 중 계명대 캠퍼스가 주는 편안함은 단연 도드라진다. 도심의 답답함에서 잠시나마 빠져나올 수 있고, 학교를 찾을 때는 이런 ‘기대감’으로 조그만 설레임까지 갖게 된다.

전세계 수많은 도시를 방문했던 나의 경험을 되살려 본다면 계명대 성서 캠퍼스의 존재는 대구로서는 빼놓을 수 없는 ‘자랑’ 중의 하나다. 물론 이런 캠퍼스에서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는 것도 따져보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축복’이다.

‘A bird in the hand is better than two in the bush.’

손 안에 있는 새 한 마리가 숲 속에 있는 두 마리의 새보다 좋다는 의미로 내가 갖고 있는 것의 소중함을 말

해 주는 영어 속담이다.

끝날 것 같지 않던 폭염이 어느새 사라지고 가을이 익고 있다. 강의실과 도서관에서 벗어나 낙엽이 떨어지는 가로수 길을 걸어보고 벤치에 앉아 자연이 주는 여유로움을 만끽해보자. 나뭇잎 사이로 펼쳐진 파란 하늘을 눈이 시리도록 보는 것도 또 다른 즐거움을 줄 수 있으리라. 가벼운 책 한 권이 손에 있다면 이 또한 학창 시절에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이다.

캠퍼스에 들어서면 20여년전 나의 대학 시절이 한 번씩 떠오를 때가 있다. 그리고 기분 좋은 추억에는 빠짐없이 교내 산책길과 숲속 벤치의 모습이 오버랩되곤 한다.

이번 주말, 가족들과 함께 계명대 캠퍼스로 가을 나들이를 나가볼까 한다.

이재협

매일신문 기자



약학대학 진학의 꿈!
'자율전공부 생명과학계열' 에서
준비하세요!



스포츠 전문 마케터 양성!
우리엔 '스포츠마케팅 학과' 가
있습니다!

2010·2011학년도 **신설 학과**를 소개합니다

전문 스포츠 마케터의 양성을 목표로 2010학년도에 새롭게 신설된 스포츠마케팅학과와
내년 2011학년도부터 새로워지는 약학대학 학제에 따라 신설되는 자율전공부 생명과학
계열을 소개합니다.

자 율 전 공 부 생 명 과 학 계 열

2011 학년도 약학대학 신설과 함께 약학대학 진학특별과정 '자율전공부 생명과학계열' 신설 !

내년 2011학년도부터 약학대학의 학제가 대학2년 수료자를 대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여 4년간 교육하는 '2+4년제'로 개편 적용됨에 따라, 우리 대학교에 약학대학 진학을 준비할 수 있는 '자율전공부 생명과학계열'이 2011학년도부터 신설된다.

자율전공부 생명과학계열은 약학대학 진학 시 요구하는 수학, 화학, 생물학, 물리학 관련 기초·소양과목 교육과 함께 예비 약사, 약학연구자로서의 적성과 소질, 기본적인 수학능력을 측정하는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시험) 과목인 언어추론, 생물추론, 화학추론, 유기화학추론, 물리추론 과목을 비정규 프로그램으로 개설, 운영할 예정이다.

자율전공부 생명과학계열은 2011학년도부터 학부단위로 학생(총15명)을 선발하며, 2학년 진급 시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로 전공배정을 받게 된다.

진학할 수 있는 학과는

자연과학대학 : 수학과, 통계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미생물학과, 공중보건학과, 식품가공학과, 식품영양학과

공 과 대 학 : 교통공학과, 토목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화학공학과, 화학시스템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경영공학과, 기계·자동차공학과, 게임·모바일콘텐츠학과

건축학대학 : 건축공학과, 도시계획학과, 실내환경디자인과, 생태환경디자인과

의 과 대 학 : 의용공학과

스 포 츠 마 케 팅 학 과

2010학년도에 새롭게 신설된 스포츠마케팅학과는 현대사회에서 이미 큰 산업으로 성장한 스포츠비즈니스가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그 시장개발의 필요성이 증폭되어 가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스포츠 시설업 마케팅에서 스포츠 서비스 마케팅까지 세계를 무대로 자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 스포츠 마케터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늘날의 스포츠 마케팅은 점차 진화하여, 이전과 같이 단순히 인기 있는 대회나 인기 있는 종목, 그리고 뛰어난 기량의 선수만을 후원하는 것에서 벗어나 점차 새로운 전략을 추구하고, 비인기 종목에 대한 투자 그리고 잠재 가능성 있는 선수에 대한 지원 등의 마케팅으로 바뀌고 있다. 또한 스포츠 마케팅 회사들은 거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회 전반에 걸친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본 학과에서는 스포츠산업에서 요구되는 경영 마인드와 바른 인성, 정보처리능력 그리고 국제적 경영 감각과 능통한 외국어를 사용하여 스포츠 마케팅에 관련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외 기업과의 산학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실무실습 및 상호 교류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스포츠 마케팅 기법을 강화하고 있다.

스포츠 마케팅 입문, 스포츠 산업론, 스포츠사 등 전공 기초 이론에서부터 스포츠 마케팅론, 스포츠 경영론, 스포츠 심리학, 스포츠 윤리학, 스포츠 외교론 등의 전공 집중1단계, 스포츠 경제학, 스포츠 재정학, 스포츠 위험관리 등의 집중2단계, 그리고 스포츠 산업분석론, 이벤트경영 및 관리, 스포츠 법과 중재 등 전공심화단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또한 골프, 구기, 라켓스포츠 등 교육 단계에 맞는 스포츠 수업을 병행한다.

이러한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학생들은 잠재된 가치를 개발하여, 스포츠 마케터, 스포츠 컨설턴트, 스포츠 행정 및 관리(스포츠 이벤트, 스포츠 에이전트), 스포츠 저널리스트, 대학원 진학 등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제1회 자율주행 자동차 경진대회 본선 진출팀 ! 무인자동차, 우리 손에 있소이다

11월 5일,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 안 자동차 시험장에서 ‘제1회 자율 주행 자동차 경진 대회’가 열린다. 이 대회는 민간 기업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현대기아자동차가 기획한 행사. 국내 주요 대학 팀들 가운데 본선에 당당히 진출한 계명대 팀에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대회 개요와 의의, 지난 과정들을 들어보았다.



‘무인자율자동차 경진대회’란 어떤 대회인가요?

이 대회는 현대기아자동차가 우리나라의 무인 자동차 시대를 앞당기려고 계획한 행사입니다. 올해로 제10회를 맞이한 ‘미래자동차 기술 공모전’ 범위를 넓힌 것으로, 민간 기업으로서는 세계 최초의 무인자동차 경진대회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미 국방부 소속 고등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군용 차량을 무인화하려고 사막을 달리는 무인차대회 ‘그랜드챌린지’를 2004, 2005년에 열었지요.

그 동안 준비는 어떻게 준비를 해오셨나요?

2009년 3월, 현대기아자동차에서 대회 개최를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9월과 10월, 서류심사와 방문심사를 거쳐 무인차 개발 능력이 인정되는 팀으로 본선 진출에 최종 선발되었습니다. 지원금은 7,000만원, 제작 차량으로는 소울 베타 2.0을 지원받았고요, 약 1년 동안 무인자동차 기술을 연구하고 차량을 무인시스템에 맞게 개조하고,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면서 대회를 준비해 왔습니다. 올해 5월에 1차 테스트를 했고, 6월에는 전체 시스템 개발을 마쳤고요, 10월 10일, 11일에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남양연구소 인근 자동차 시험장에서 주요 시스템과 주행 성능을 점검하는 3차 사전 주행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현재는 달성2차산업단지, 고령, 논공 등의 지역을 돌며 다양한 환경에서 마무리 테스트를 진행중입니다.

대회에서는 어떤 것을 평가하나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설치된 4km 코스를 실수 없이, 빨리 완주해야 합니다. 미션은 모두 아홉 개가 있는데요, 서 있는 차나 도로 중앙 장애물, 건초더미 같은 걸 피해서 가야 하고, 터널이나 좁은 길도 빠져 나가야 합니다. 제한 속도도 지켜야 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멈춰 서야 하구요. 이걸 모두 잘 하고, 가장 빠르게 해낸 팀이 최종 승자가 되는 거죠.

본선 진출 팀과 우승 팀에 주는 특전은?

저희를 비롯해서 건국대, 국민대, 부산대, 서울대, 아주대, 인하대, 전남대, 한국기술대, 한양대, KAIST 해서 모두 열한 팀입니다. 예선 경쟁률은 약 3대 1이었습니다. 1, 2, 3등은 한 팀씩 뽑는데요, 우승은 상금 1억 원, 2등은 5천만원, 3등은 3천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열점상과 혁신상 2팀은 500만원씩, 도전상 6팀은 200만원씩 상금을 받습니다.

비사 (BISA) 3 호는 어떤 차입니까?

저희가 개발한 무인 자동차, 비사3호는 목적지를 설정해 주면 차가 알아서 갑니다. 약 10cm의 오차 범위를 가진 GPS를 따라가는 것이지요. 차의 앞과 좌우측에 붙은 센서는 최고 40미터까지 사물을 인식하고, 사물이 30미터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거리에 따라 감속 또는 회전, 정지 등의 작동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전자기기로 제어하지만 사람의 팔과 다리를 대신해 자동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첨단 부품들입니다. 차가 달리는 동안 센서를 통해 지형지물을 감지하기 때문에, 이 차가 상용화되면 더욱 편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회에 참가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머지않아 무인 자동차가 우리 생활에 쓰이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나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라도 무인 자동차는 꼭 필요하지요. 세상이 필요로 하는 첨단 기술을 우리 힘으로 개발하고 발전시켜 간다는 데 정말 뿌듯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앞으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무인 자동차를 개발해서 온 세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명성을 떨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

명대 지능형자동차대학원이 미래자동차 기술 연구의 선봉으로서 국내 자동차 산업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여한 교수님과 학생들 이름을 알려주세요. 건투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책임교수님은 이재천 교수님이고요, 임문혁, 이병수, 신현명, 최해운 교수님(이상 기계자동차공학부)의 지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 대표는 지능형 자동차대학원에 재학중인 이재익입니다. 그리고 참여 학생은 지능형자동차대학원에 재학중인 권태황, 고재욱, 김순동, 유종기, 배한근, 이상운, 최영일과 기계자동차공학부 김치운입니다. 또한, RIC센터(전자자동차부품지역혁신센터)에서 이호승, 백승엽, 류하오 연구원이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나는야 뉴욕의 즐거운 세일즈맨

영어 실력도 쌓고, 실무 경험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외국 인턴십이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미 유학생들도 포기한다는 미국 정규직 취업에 성공한 학생이 있다. 2008년 6월 계명대를 졸업하고 미국 헤어뷰티업계에서도 이름난 비피아이엔씨의 마케팅, 홍보 부서에 인턴 사원으로 간 권명재 동문. 특유의 성실함과 당당함으로 인턴 기간 3개월 여를 앞두고 정규직 취업을 제안 받은 그가 자신의 꿈을 좇아 뉴욕 거리를 누벼온 시간, 1년여 간의 이야기를 서면으로 전해왔다.

미국 비피아이엔씨 마케팅 홍보부서에 취업한

권명재 동문

경제학과 01학번

나를 알면 길이 열린다 해외 인턴을 가게 된 계기

대학 시절에는 학생회 활동을 하며 선배들과 어울리길 좋아했습니다. 4학년이 되어서도 ‘단지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을 목표로 해서 쫓아다니는 건 아니겠지’는 고집과 핑계로 자격증은 물론이고, 그 흔한 토익 하나 준비해 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싶은데 뭘 할지 몰라서 고민하며, 여러 선배들의 직장 경험을 묻고 다녔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부터 중소기업, 대기업, 소위 잘나간다는 전문직에 있는 사람까지 찾아다니며,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자기 일로 즐거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그냥 다니다”고 대답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겠다는 생각으로 ‘난 무슨 일을 좋아하고, 어떤 일이 나에게 잘 맞는가?’란 해답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그 해답을 찾기란 불가능했습니다. 어떤 새로운 것을 해보지 않고서는 내가 그것을 좋아하는지, 그 일이 내가 맞는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뭔가 다른 무언가를 찾던 중에, 외국에 나가서 일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졸업이 코앞이라 잠시 망설였지만, 결

심을 굳혔지요. 하지만 수속 비용이 만만치 않고, 인턴십 업체에서 제공하는 외국회사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하기에 인턴십 에이전시에서 일을 하며 비용도 마련하고, 나에게 좋은 기회가 될 회사를 물색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회사에 서류를 넣었고, 운 좋게도 면접까지 통과하여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단순 노동의 반복 미국 인턴십 생활

제가 일하게 된 회사는 중국과 인도네시아에서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수입하여 자사 브랜드로 리테일스토어에 판매하고, 또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업계에서 상위에 랭크되는 회사라 기대도 컸고, 일에 대한 기대도 컸으며, 미국에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릴 만큼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면서 실망하기 시작했



습니다. 인턴으로 한국에서 온 저에게는 아주 단순한 일 말고는 별다른 업무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쪽에서 보기에 전 일을 맡기기에 적합하지 않은, 문화도 낯설고 언어도 능숙하지 못한, 한국에서 온 풋내기 학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답답했지만 여러모로 부족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회사는 미국에서 장려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며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정해진 일도, 자리도 없었으며 단순 노동만 하루하루 다르게 주어졌습니다.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달랐기에 미국생활에 실망도 많이 했고,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돌아가기엔 자존심이 너무 상했고, 오기가 생겼습니다. 되든 안 되든 해보자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먼저 나서자 인턴 사원에서 정규 직원으로!

회사내 여러 가지 일 중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세일즈였으므로 그 날부터 주어진 일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세일즈맨들에게 도와드릴 것이 없냐고 물어보며 다녔습니다. 서류 정리하는 간단한 일부터 돕기 시작했고, 서류를 정리하며 조금씩 회사의 시스템을 파악했으며, 각종 인보이스를 분류하면서 각 거래 선들과 자사 제품들의 종류, 이름과 가격 등을 익혔습니다. 그

런 것들을 알게 되자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며, 거래선 담당 세일즈맨이 없을 때는 대신 오더를 받아 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후, 뉴욕 담당 팀장님한테서 “팀에 들어와 세일즈를 한번 해보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기회가 왔고 최선을 다해 전화로 고객들에게 저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믿고 거래를 하자는 고객들이 하나둘 생기며, 드디어 회사 최초로 인턴임에도 뉴욕을 누비며 거래선을 직접 만나서 세일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는 최선을 다해 일했고, 그에 상응하는 성과도 올렸습니다. 그 결과, 인턴비자 끝나기 3개월 전쯤인 2009년 4월, 정규직으로 채용되었고, 지금은 신분 스폰을 받으며 브루클린 담당 세일즈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미래다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하라

기업이 그들의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는 투자를 하듯, 스스로에게 무언가 새로운 경험을 주는 투자를 하십시오. 물론 자신을 위한 투자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토익점수를 올리고 스펙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해 하는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게임도 해보지 않고서는 재밌는지 알 수 없듯

이, 뭔가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성공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생각만 해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무언가 관심이 가면 현재 여건이 안 되거나 두렵더라도 과감하게 도전해 노력해 보는 것이 자신을 위해 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일 것입니다.

회사 주소 : 207B 11TH ST PALISADES PARK
NJ 07650

현 직책 : SALES MANAGER



이민기

경영학과 4학년

박정일

회계학과 4학년

김동혁

세무학과 4학년

채규환

경영정보학과 3학년

김동경

경영학과 4학년

팀원 수상 경력

김동경 (경영학과 4학년)

2009 전국 금연서포터즈 대학생 체험 공모전 대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상)
2009 전국 대학생 현금영수증 객원마케터 공모전 대상(국세청장상)
2010 글로벌캐스트 지역기업 탐방보고서 은상 (지식경제부장관상)
2009 제 10회 글로벌 대학생 마케팅 공모전(현대자동차) - Idea Choce상

김동혁 (세무학과 4학년)

2008년도 대구광역시 청소년 소호벤처 창업아이템 발굴 대회 장려상 수상
2009년도 창업동아리 우수 창업아이템 개발 지원사업 대상 수상

박정일 (회계학과 4학년)

2007년 2학기 교내 영어시사동아리 TIME회장 역임
2007년 KLC, 경영대학 우수스터디 동상

이민기 (경영학과 4학년)

KEC 동아리 경진대회 동상
경영대학 프레젠테이션 대회 금상
대학생 지역발전현장 탐방보고대회 - 지식경제부 장관상

채규환 (경영정보학과 3학년)

2010 대학생 지역발전현장 탐방보고대회 - 지식경제부 장관상
2009 창업동아리 우수 창업아이템 개발 지원사업(중소기업청) - 지원금 800만원
2009 제 10회 글로벌 대학생 마케팅 공모전(현대자동차) - Idea Choice상

자동차 바퀴를 사랑한 공부벌레, ‘바퀴벌레’

지난 9월 16일, 대구 엑스코에서는 ‘대한민국 지역 발전 현장을 중계한다’ 는 슬로건이 붙은 ‘2010 글로벌 캐스트’ 시상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다섯 명의 남자들. 이들은 공모전 블로그 부문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상인 은상을 차지하여 상패와 부상을 받은 것은 물론, 지역 우수 기업을 추천 받아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는 특전을 부여받았는데, 자신들을 ‘바퀴벌레’ 라고 소개한 이들은 누구일까? 대체 무엇으로 상을 받은 것일까?

축하합니다. ‘바퀴벌레’ 는 어떤 모임인가요?

저희는 계명대학교 경영대학 3,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1학년 때부터 모두 알고 지낸 사이고, 규환이(팀장)가 공모전 참가를 제안하여, 지난 6월, 팀을 만들고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공모전에 참가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채규환 } 준비하지 않으면 선택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평소 공모전이나 대외 활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교내에서 실시한 ‘글로벌커리어스쿨’이라는 국외 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경험하였기에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중국에서 현대자동차와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인 만도(주)와 후성(주)를 탐방하였는데, 기업의 공급 사슬에 관하여 직접 보고 느끼면서 기업 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왜 ‘바퀴벌레’ 라고 했나요?

일동 } 자동차 부품을 상징하는 톱니 ‘바퀴’ 에, 공부벌레나 책벌레라고 할 때의 ‘벌레’ 를 붙여 팀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임상옥의 소설 ‘상도’ 에 나오는 분의 별명을 따서 저희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만큼 자동차를 좋아한다는 뜻이지요. 자동차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자동차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듯이, 저희 5명도 톱니바퀴처럼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며 대한민국이라는 자동차를 움직이고 싶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글로벌 캐스트 공모전은 어떤 공모전인가요?

일동 } 2010 글로벌 캐스트는 지역 발전 주간에 실시된 국민 참여 행사로서, 신청 대학생들이 지역 발전 현장을 탐방하고 현장 탐방 보고서를 UCC 또는 블로그로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네티즌이 투표하고 전문가가 심사하여 시상하는 행사였습니다.

이번 공모전 블로그의 주제와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박정일 } 저희는 ‘자동차 부품 산업의 메카, 대경권이 꿈꾸다’라는 제목으로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구의 주력 산업이 섬유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은 자동차 부품 산업이 놀랄 만큼 발전해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1,300여개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친환경 및 지능형 자동차 등 첨단 자동차 부품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여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김동혁 } 저도 모르고 있던 많은 기업과 연구소를 알게 되었고, 취직에 대한 생각도 조금 수정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민기 } 공대생들이나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인 ‘대구 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하여 경영대생의 야심찬 도전이었습니다. 기초 지식이 부족했던지라 관련 도서 및 자료, 논문을 찾아보며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자동차 부품산업의 전반적인 흐름과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대구 자동차부품 산업에 대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공모전 참가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채규환 } 무엇이든지 처음부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교 수업과 교수님들의 조언을 통해서, 그리고 학교에서 시행하는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문 지식과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교내에서 시행하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해 보세요. 무엇보다도 그런 프로그램에서 인연을 맺은 학우와 함께 한다면 더욱 좋겠죠?

김동경 } 학창시절에 할 수 있는 만큼 대외 활동을 많이 해보세요. 자신의 이력뿐만 아니라 내면의 실력도 쌓여 자기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수업시간에 배운 하나하나 모두가 대외 활동을 기획하고 활동하고 보고서를 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동안 대외 활동을 하며 감사 드리고 싶은 분들이 정말 많지만, 특히 수업시간이나 보고서를 통해 논리적인 흐름을 가르쳐 주신 경영학과 홍관수 교수님, 따뜻하게 웃으시며 항상 도움을 주신 세무학과 김영화 교수님, 그리고 저의 대외 활동의 모태인 공모전 동아리 K.C.G.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동혁 } 활동 공모전이고 인터넷 블로그로 홍보도 해야 되는 공모전이라서 꾸준히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지만, 새로운 많은 정보들을 알 수 있고,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할 수 있었던 공모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석 3조’ 복수학위제

중국어와 영어, 경제학까지 동시에 잡는다!

2009년 9월, 2학년을 마치고 상해 사범대학 어학 연수생으로 간 도아영 학생. 처음 한 학기 동안 다른 외국 유학생들과 함께 중국어를 공부하며 HSK 6급 실력을 갖추고, 다음 학기부터 중국인 학생들과 함께 전공 수업을 듣기 시작해 2010년 10월 현재 4학년으로서 7학기 이수 중이다. 쿼터 높기로 유명한 상해사람들도, 무뚝뚝한 절강성 사람들도 마음을 열고 친구가 되니 공부도, 생활도 모두 즐겁다는 그녀가 전해주는 KMU-SNU 복수학위제!



KMU-SNU 복수 학위 프로그램 2기 학생으로 처음에 혼자 강의실에 들어섰을 땐 어설픈 중국어로 이 친구들을 어떻게 사귀나 걱정이 되었다. 모두가 나를 주시하고 있는 듯 했으나 아무도 먼저 다가와 말을 걸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계 도시인 상해에서 어떻게 외국인에게 이렇게 배타적일 수 있나 하고 섭섭하기도 했다.

하지만 곧 그건 나의 오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학생들에게는 한국의 화장품이나 드라마로, 남학생들에게는 이효리나 소녀시대로 대화를 시도하자 금방 친구가 될 수 있었다. 한류 열풍의 덕을 톡톡히 본 것이다. 하지만 그래서인지 내 말 한마디 한 마디와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그들에게는 ‘도아영’이라는 한 사람이기보다는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계명대라는 이름으로 그려질 것이라는 생각에 부담감도 적지 않았다.

국경을 넘어 마음을 터놓는 친구가 되고 나자, 중국인이 중화요리의 대표적인 자장면도 못 먹어봤냐는 나의 비아냥에 우리반이 단채로 한인마을 중국집에 갔던 일도 있었고, 풀하우스에서 송혜교가 불렀던 ‘곰 세 마리’가 그렇게 귀여웠는지, 나만 보면 ‘곰 세 마리’를 불러 달라는 친구들에, 한국어가 너무 듣기 좋으며 한국어 학원을 등록한 친구도 한둘이 아니었다.

가끔 술자리에서도 막스주의나 위안화 절상 문제, 상해 부동산 열기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며 내게 의견을 물어봐 나를 당황하게 하지만 그런 친구들이 내가 힘들어 할 때면 중국과 한국은 그



SNU복수학위 프로그램은

1,2학년은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3,4학년은 중국 SNU(상해 사범대학 : Shanghai Normal University)상학원에서 수학하여 두 대학의 학위를 모두 취득할 수 있는 복수학위 프로그램(매년 10명 선발)



렇게 먼 나라가 아니라며 힘든 일은 함께 고민하자면서 오히려 나를 위로하기도 했다. 콧대 높기로 유명한 상해사람들도, 무뚝뚝한 절강성 사람들도 서로 마음을 열고 친구가 되자 함께 공부하고 생활함에 있어 늘 유쾌할 수 있었다.

나는 SNU복수학위 프로그램으로 계명대학교 통상학과에서 1,2학년을 이수하고, 3학년 1학기부터는 상해 사범대학에서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한 학기 동안 다른 외국 유학생들과 함께 중국어를 공부하게 되고, HSK 6급의 성적을 갖게 되면 그 다음 학기엔 중국인들과 함께 전공 수업을 듣는 본격적인 복수학위제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 때, 상해 사범 대학의 전공은 우리가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를 포함한 1기 선배와 3기 후배 모두가 중미경제학과를 선택했다. 중미경제학과는 기본 경제학 수업을 전공으로 하되, 중국인 교수님과 미국인 교수님이 각각 중국어와 영어로 경제학 수업을 한다는 점이 일반 경제학과와 다른 점이다. 복수 학위를 이수하는 우리들로서는 중국어와 영어, 경제학까지 동시에 세 가지 복병을 만나게 되는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잘 이겨내면 오히려 '1타 3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한다.

중국이 가까운 나라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타국 땅인지라 외로울 때도 많고, 중국어로 된 수업에서 중국인과 경쟁해야 하기에 거기에서 오는 스

트레스로 '상하이의 잠 못 이루는 밤'도 무수히 보내야 했다. 하지만 지난 여름 모든 프로그램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간 1기 윤찬웅 선배의 격려와 충고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선배님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내가 본 우리 교실 안의 중국은 교수법이나 수업 내용이 매우 실용적이고, 생활 면에서 허례 허식이 없고 검소하다. 그리고 난 그 부분들을 배우고자 많이 노력한다. 물론 비위생적인 부분을 보게 될 때도 있고, 우리나라와는 다른 사고 방식, 무질서한 도로, 자기중심적인 생각들과 마주칠 때도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이 나라의 문화이니만큼, 중국이란 나라로 유학을 온다면 언어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모든 생활 습관과 풍습까지도 공부의 연장선으로 놓고 보아야 하며, 내가 이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 배우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어도 배우고, 전공 지식도 넓히고, 무엇보다 중국인을 이해하면서 중국을 알아간다. 같은 한국인이나 서양친구들과 더 어울리게 되는 어학연수보다는 중국인들과 하나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복수학위제가 진정한 '留學'이 아닐까 생각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상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자신이 상해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한 더 많은 후배들이 KMU-SNU 복수학위제에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근대 대구 풍경을 찾아서 ①

동산에 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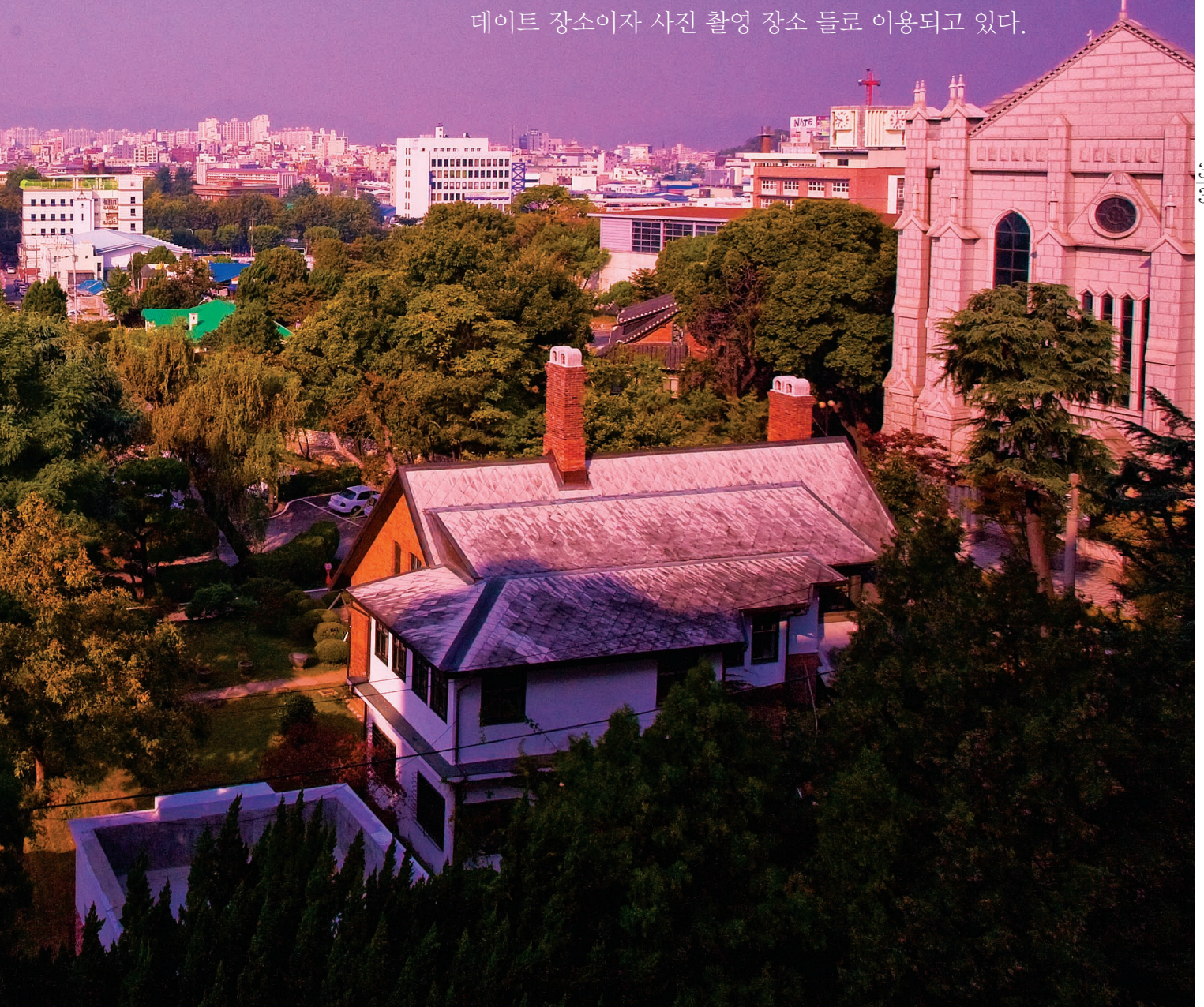
9월 13일(월)부터 19일(일)까지 인문주간 동안 계명대 논리윤리교육센터는 크게 '대구·경북 기억하기'와 '기억 속 가족의 온기' 두 가지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펼쳤다. 그 가운데 '근대 대구문화의 풍경을 찾아나서다'라는 프로그램은 대구 골목길을 답사하고 그에 얹힌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었다. 우리가 사랑하고 마음 쓰지 않으면 사라져버릴 대구의 골목, 대구의 역사. 그 속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 보자. 오늘은 첫 번째, '동산' 일대 이야기다.



사람이 사람과 이어지듯이, 길은 언제나 길로 이어진다. 그 길에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닦고, 그 위에서 나고 자라고 웃고 울다 쓰러진다. 그리고 또 그 길에서 새 희망의 씨앗이 움튼다.

오늘 소개하려는 ‘동산’ 역시,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100여 년 전, 오로지 믿음 하나로 멀고도 물선 땅을 찾아온 푸른 눈의 개신교 선교사들, 그들은 불모지였던 이 언덕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땅’이라 여겨 구입했고, 이곳 동산 언덕에 병원을 세우고 사택과 희도학교, 동산병원, 신명학교, 계성학교 등을 차례로 설립하며 대구 근대화의 한 축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한 세기가 지난 지금 동산은 지치고 아픈 이들을 치료하는 곳으로, 100여 년 전에 살았던 선교사들의 삶을 보여주는 박물관으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이자 사진 촬영 장소 들로 이용되고 있다.





선교박물관



의료박물관



교육·역사박물관

((대구 최초의 서양식 건물들))

선교박물관

(대구시 유형문화재 제24호)

이 곳은 대구에서 처음 순교한 처녀 선교사, 마르타 스위처(Miss Martha Switzer)가 살았던 집이다. 그는 미북장로회 선교사로서, 1911년에 대구에 와서 대구여자성경학교 교사 및 교장을 역임하는 등 교육과 여전도회 조직에 정력을 쏟다가 과로로 쓰러졌다. 계성학교 4대 교장인 핸더슨, 계명대학교 초대 학장인 캠벨 같은 선교사들도 이 집에 살았다. 한국 전통 기와에 서구식 적벽돌, 스탠드 글라스로 장식한 창이 인상적이다. 그리고 이 집은 대구 음성 돌을 써서 기초를 다진 것이 특징인데, 대구음성은 1906년 경북관찰사 서리 겸 대구군수로 있던 박종양이 조정 허락도 받지 않고 헐어버렸다. 1층에는 각종 성경과 선교 유물이 있고, 2층에는 성막이 전시되어 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광야에서 야훼를 섬기던 곳으로, 오늘날 교회의 원형이 된다. 선교박물관 앞마당에는 100주년 기념 종탑이 있다.

의료박물관

(대구시 유형문화재 제25호)

이 곳은 챔니스(O. vaughan Chamness) 목사가 살았던 집으로, 당시 미국인 선교사들이 살았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다. 계성학교 2대 교장인 레이너와 챔니스 선교사 등에 이어 1948년부터 동산의료원을 크게 발전시킨 마펏 선교사가 살았던 곳이라 하여 '마펏주택'이라고도 불린다. 이곳에는 조선시대 수술기구, 자동 시야검사기, 마취기 등 1800년대부터 1900년대 전후에 쓰였던 동서양 의료기기와 세균배양기 같은 근대 의학기구도 전시되어 있다.

교육·역사박물관

(유형문화재 제26호)

이 곳은 현존 선교사 주택 가운데 가장 오래된 곳으로 블레어(William N. Blair) 목사가 살았던 집이다. 시대별 교과서와 민속자료를 볼 수 있으며, 3.1운동 자료와 2002년 월드컵 관련 자료 및 사진, 2003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기념품 등을 볼 수 있다.

이 살고 있다는 큰 고목나무를 빼놓고는 모두 헐벗은 황무지였고 일부는 무연고자의 묘지였는데, 이곳에 계중원(현, 동산의료원)과 미션스쿨(선교학교) 등을 지으면서 '대구의 시온'으로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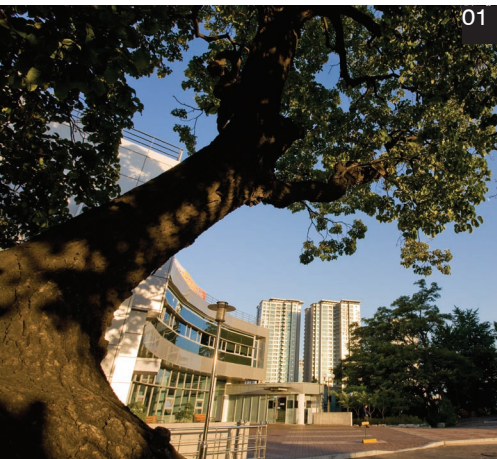
교장 선생이 한국말 통역을 했는데, 학생들에게 들려준 연설문의 요지는 “미래 코리아의 역사를 짚어질 선명의 딸들이여! 꿈을 가져라. 하나님이 택한 딸로서 받은 달란트를 최대한 살려 ‘아름다운 작품’이 되라” 였다고 한다.

동산은 원래 동산(東山)이 아니라 서산(西山)이다. 그런데 왜 서쪽 산을 동산이라 부른 걸까. ‘동산’이란 이름이 붙은 데는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고려 시대부터 중심지였던 달성의 동쪽 산이라 ‘동산(東山)’이라 불렀다는 설이고, 또 하나는 구린내가 나는 산이라 하여 이두식 표현으로 구리 동 ‘銅’자를 써서 동산이라 하였다는 설이다.

1899년 미국인 선교사 아담스와 존스는 달성 서씨 문중의 땅이었던 동산과 주변 농지를 2,200냥에 사들였다고 한다. 당시 동산은 언덕 밑에 산신령

선교박물관 앞 대나무 군락은 몇 해 전 화제를 모았다. 선교사들이 집을 지으며 없앴 대나무가 다시 죽순을 터뜨리기 때문이다. 영성한 철제대문 너머로 제일교회의 200여 년 된 이팝나무(현재명나무)와 노벨상 수상자인 헬렌 켈러가 방문한 신명고, 성명여중도 보인다. 헬렌 켈러 여사는 1930년대 세계의 평화와 동포애를 주장하며 일본을 거쳐 부산, 대구, 서울, 평양을 돌며 강연회를 했는데, 1937년 6월 12일 신명여고를 찾아 유창한 수화로 조선의 풍토와 조선인의 인정미를 예찬했다고 한다. 또, 그녀의 비서인 포리 톰슨 여사가 소리 통역을 하고, 폴라드

우리은행 동산동 지점 주차장 옆에는 ‘귀암서원(龜巖書院·이하 구암서원) 입구’ 표지석이 있다. 1665년 연구산(현재 제일여중 자리)에 구암사(龜巖祠)로 지어진 구암서원은 달성(현재 달성공원)을 국가에 헌납하며 대구 백성의 환곡 이자를 감해주도록 한 구계 서침을 봉안하면서 1675년 구암서원이란 부르게 된다. 1718년 동산동으로 옮겼으나, 1868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철거됐고, 1924년 다시 지어서 1996년 북구 산격1동에 등지를 틀었다.



01



02



03

((한번 찾아보세요))

- 01 **현제명 나무** : 제일교회 북편 마당의 이팝나무 동산 언덕에 있는 새로 지은 제일교회 바로 옆에 있다. 대구 남산동에서 태어난 현제명이 다닌 계성학교가 동산 바로 옆에 있으며, 학창시절 인연이 많았을 것이라 여겨 대구시가 ‘현제명나무’로 정했다.
- 02 **동산 100년 사과나무** : 동산 스위트 주택 원편 동산 ‘100년 사과나무’는 존슨과 아담스 등 개신교 선교사들이 심은 사과나무의 자손목이다. 품종이 서로 다른 사과나무를 접붙인 나무가 죽고 다음해 나무 밑둥에서 새순이 올라와 자란 사과나무이다.
- 03 **동산 담쟁이** : 동산 일대 동산의 선교사 집들을 비롯해 사택 여러 채가 담쟁이로 덮여 있다. 담쟁이는 더위를 막고 건물의 아름다움을 더하는 식물로 많이 쓰인다. 동산 건너편 계성학교 핸드스관, 맥퍼슨관에도 담쟁이가 있다.



01



02



02

32
33

((한번 찾아가 보세요))

- 01 **은혜 정원** : 대구 근대화의 선구자들, 여기 잠들다. 마켓 선교사 사택 앞에 있는 ‘은혜정원’은 선교 사역을 위해 대구·경북에 왔다가 순교한 개신교 선교사들과 그 가족의 묘지다. 20대 젊은 나이에 순교한 선교사도 있고, 태어난 지 10일 만에 죽은 갓난아기도 있다. 장로교 선교사뿐 아니라 침례교, 구세군 선교사도 있다. 제일교회 설립자 아담스 목사의 부인인 벨리 딕 아담스의 묘비에는 “그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을 뿐이다(She is not dead but sleepth)”라고 새겨져 있으며, 28세 신혼의 젊은 나이에 순교한 체이스 크로포드 사우텔의 묘비에는 “나는 그들을 사랑하겠노라(I am going to love them)”라고 적혀 있다.
- 02 **90계단, 대구 3.1운동길** 동산맨션 오른쪽에 제일교회와 경계 되는 담을 따라 오르막 계단 90개가 있다. 이 길은 동산병원을 가로지르는 길로서, 계단을 오르면 ‘대구 3.1운동길’이라는 안내 간판이 있다. 1919년 3월 8일, 대구에서 일어난 3.1만세 운동 때 계성, 신명 학교와 대구고보 학생들이 동산병원 술밭을 지나간 것을 기리기 위해서다. 원래 2·28선언으로부터 시작된 대구 지역 3.1운동은 3월 한 달간 여러 번 일어났는데, 그 중 가장 큰 시위가 3월 8일 토요일 오후 큰장(현 섬유회관 건너편) 만세운동. 계성학교 남학생들은 흰 두루마기로 장꾼처럼 차리고, 신명학교 여학생들은 대야에 빨랫감을 담아 제일교회와 계산성당 사이를 흐르던 버들치 냇가로 빨래하듯 꾸미고, 대봉동 대구고보 학생들은 대봉동, 남산동 돌판을 가로지르거나 동산병원 술밭을 가로질러 집결지로 모여 만경관, 종로를 거쳐 동성로, 대구백화점 쪽까지 행진했다고 한다. 한편, 이 길은 ‘빈처’를 쓴 소설가 빙허 현진건이 시상에 잠겨 산책하던 곳이기도 하다.



예술가들이 꿈꾸는 영혼의 해방구

‘동성로’를 세계의 예술 거리로 !

런던과 파리에서, 뉴욕과 시드니에서 거리의 악사들과 거리의 화가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은 그 거리가 주는 멋과 낭만을 즐긴다. 온 몸을 하얗게 칠하고 꼼짝 않던 동상이 실은 행위예술을 하는 사람임을 알았을 때, 깜짝 놀라면서도 기꺼이 동전 한 닢을 모자에 던져 넣는다. 이처럼 자유로운 예술의 거리를 대구에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야심찬 계획, 이름하여 ‘동성로 로드아트(Road Art) 컨설팅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컨설팅 & 운영위원회 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계명대 연극예술과 김중효 교수를 만나 사업 취지와 진행 사항, 향후 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동성로 로드아트’ 사업은 민, 관, 산, 학이 힘을 합해 대구 동성로를 세계 속의 문화 예술 거리로 만들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공공 디자인 개선 사업으로 외형을 다듬었다면, 이제 그 거리에 문화를 접목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올해 국비와 지방비 총 8,0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계명대학교와 중구청, 동성로 상인들, YMCA와 거리예술가, 지역공연 단체 대표 등 10여 명이 주축이 되어 컨설팅 &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거리예술을 정착시킬 수 있는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스트리트 퍼포먼스(Street Performance)’라 하면 계획된 너른 거리에서 하는 공연이 연상되니까 ‘골목길’에서 하는 예술이라는 의미를 부각시켜서 ‘로드아트(Road Art)’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동성로는 하루 유동 인구가 대개 10만 명에서 많을 때는 30~40만 명까지 되는 길입니다. 1907년 일제가 허물어버린 대구읍성의 동쪽 성벽이 있던 자리에 길이 난 곳으로서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곳이며, 20~30대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변화가이기도 합니

다. 또, 동성로 인근에는 교통 전자상가, 야시골목, 북성로 포장마차 골목 등 스토리를 가진 명물거리가 있고 매년 5월에는 동성로 축제가 열리며, 경상감영공원과 대구역사관, 이상화 고택, 서상돈 고택, 약전골목, 국제보상운동기념공원 같이 역사문화 자산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내년 2011년 세계육상경기대회가 열리고 대구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아지면 이곳은 더 붐비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단순히 쇼핑만 할 게 아니라 문화와 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거지요.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와 대학생, 청년작가들에게는 자신의 끼와 열정을 뽐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줌으로써 창작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상인들에게는 문화 예술의 거리에서 장사를 한다는 자부심을 더해지게 되고, 지역 시민들에게는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예술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을 주는 게 되지요.

지난 봄부터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야외무대에서 계명대 음악·공연예술대학 연극 예술과 학생들과 한국미술협회 대구지부, 대구



YMCA, 지역 예술가들이 참여하여 조각상 퍼포먼스, 마임, 거리 마술, 캐릭터 댄스, 비보이&댄스 페스티벌 같이 연극과 음악, 뮤지컬과 인디 밴드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거리 공연을 펼쳐왔으며, 동성로에 오는 사람들의 나이, 취향 따위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공연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또, 관계자 간담회를 열어 상인들이 불편해하는 소음 문제와 고객 통행의 문제, 시민들의 바람 등을 듣고 거리공연 장르와 모델 개발, 가이드라인 제정, 기획공연 연출, 진행 등을 토론하면서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때 잠깐 반짝하고 마는 관 주도의 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2011년에는 거리에 술가를 키우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며, 2012년에는 문화 관광 콘텐츠화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나아가 2013년에는 거리예술 활성화 위한 구조 확립을 위해 조례를 제정토록 하고, 도쿄, 시즈오카, 런던 등 타 해외 도시간 국제 네트워크를 구성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예술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거리문화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광장 문화가 발달해 있고, 거리 공연도 활발하듯이,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거리 공연이 낯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요즘 베를린이 예술가들에게 무상 임대 아파트를 지원하거나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예술가들의 천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구는 아직 그만큼은 아니지만, 예술가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동성로를 문화지구로 지정하고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명 시행 착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관련 부서나 서로간의 이해 관계를 따지지 말고, “세계가 알아주는 대구 도심을 만들겠다”는 목적 하나에만 뜻을 같이 한다면 우리가 가진 소중한 자원인 동성로를 세계에 알리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 믿습니다. 대구 문화를 살리고, 지역 예술가를 키우는 ‘로드아트’사업, 시민 모두의 자발적인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 ☆☆☆
- 사진 맨 위는 로드아트사업 컨설팅 & 운영위원회 팀장 김중호 (연극예술과) 교수
 - 9, 10, 11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에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메인 무대에서는 다양한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있다.

한잔의 차로 나를 돌아보고
이웃과 함께 행복을 나누고 싶다

차명상 동아리

둥지



스스로 몸과 마음을 다스리며,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다. 조용하고 은은한 차 향기로 세계 곳곳에 우리의 전통을 알리고 있는 계명대학교 차명상 동아리 '둥지' 사람들이 그들이다. 나를 넘어 이웃과 함께 행복을 찾는 사람들, 우리나라 문화 사절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둥지인'들을 만나보았다.



‘등지’는 어떤 곳인가요?

차문화와 명상, 예절을 배우면서 좀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계명대학교 재학생들의 동아리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건강→여유→나눔→실천→행복’의 단계를 밟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며, 또한 한국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등지’라는 이름은 차명상 동아리가 국내는 물론 외국에까지 가는 곳마다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등지를 만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언제 만들어졌고, 회원은 몇 명 정도?
계명대 평생교육원에서 차와 명상을 전달하고 계신 이화순(유빈문화원장) 교수의 지도 아래 2005년 만들어졌고, 차문화와 예절, 명상 교육과 인성 교육, 취업 면접 교육 등을 무료로 배울 수 있습니다. 현재 회원은 60여 명에 이르며, 졸업 후에는 선·후배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등지 운영위원’으로서 동아리 활동을 계속합니다.

‘등지’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회원들은 우선 차명상과 예절 수업을 받습니다. 인성 교육과 자기 계발, 명상 심리 교육뿐 아니라 한국 전통문화, 생활 명상 및 바른 자세 교정(멋진 몸 만들기, 밝은 얼굴), 명상 체조, 차를 활용한 건강 음식 등을 배우며, 희망하는 회원들은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차문화 예절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300시간의 수업을 이수하고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해야 주어지는 쉽지

않은 자격증이지만, 회원들 상당수가 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차문화와 예절 선생님이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차명상 동아리 ‘등지’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나눔실천 봉사활동입니다. 장애인 기관 및 관련 기관을 찾아 차문화와 명상·예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매월 대구 북구에 있는 성인 지체 장애인 시설인 대구안식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여성 장애인 연대 대구지부와 대구보명학교 등에서도 나눔을 실천하고, 그 밖에 필요한 곳에서 언제든지 마음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이탈리아, 미국 등 국외에서도 ‘한국 차명상 교육 및 발표회’와 ‘한국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맡아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고 세계인들이 우리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차명상 동아리 ‘등지’만의 특징점이 있다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하고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동을 하는데요. 먼저,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되새기고 건전한 놀이 문화를 창조합니다. 매학기 신입생 환영회 때 하는 우리나라 지도를 이용한 이색 옷놀이는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지역 명칭에 대한 공부도 할 수 있는 놀이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참살이 산나들이’라는 모임을 통하여 자연 속에서 행복을 공유하며 건강한 몸 만들기 와 자연 명상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각자 맛나는 음식들을 준비해 와 함께 내놓으면 멋진 산나들이 뷔페가 되지요. 산에서 내려올 때는 자연환경 활동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또 해마다 ‘나눔지’라는 차문화, 예절, 명상 관련 교양지를 차명상 동아리 회원들이 직접 기획, 제작, 편집하여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까지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나눔지 5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만 부를 만들어 관공서, 교육기관, 기업체 등 원하는 곳에 전해 드렸고, 지금도 진행 중

에 있습니다.

차명상 등지가 하고 싶은 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화순 교수님, 저희 동아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곳에서 나눔을 실천하시는 모습이 저희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동아리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미국학과 김정규 교수님께 지면을 통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계명대학교 학우 여러분! 대학생활에 특별한 추억을 남기고 새로운 것을 경험해보고 싶다면 차명상 등지원이 되어보세요. 기회가 되어 차명상 등지원이 된다면 이곳에서 많은 이로움과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동방, 차명상 등지 동방에 오셔서 차 한잔의 여유를 가져보세요.

☆☆☆

차 마시는 예절

차잔을 잡을 때는 양손을 사용하여 공수자세를 한 다음 엄지손가락을 제외하고는 양손 모두 붙여서 오른손으로는 찻잔 바닥을 받칩니다. 차를 마실 때는 눈으로 차의 색을 보고, 차의 향을 맡고, 입으로 차의 맛을 보며 서너 번 나누어 천천히 마십니다.





계명아트센터에서 ‘오페라의 유령’을 만나다

- 화려하고 스펙터클한 지상 최고의 무대 예술
- 세기를 뛰어 넘는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아름다운 음악
- 숨 죽이게 하는 매혹적이고도 슬픈 사랑 이야기

레 미제라블, 미스 사이공, 캣츠와 함께 세계 4대 뮤지컬 중 하나로 손꼽히는 ‘오페라의 유령’을 이제 대구에서도 볼 수 있게 되었다. 9,000회 공연을 돌파하였으며, 지금까지 전세계 27개국 144개 도시에서 약 1억 명이 관람한 뮤지컬로서 2001년 국내 초연 때부터 지방 공연이 추진되었지만, 그동안은 비용 및 무대시설을 수용할 극장 시설, 동원 관객수 등을 이유로 서울 말고는 다른 어느 지역에서는 공연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대구는 이미 뮤지컬 시장을 형성해왔고, 무대시설과 관객 수용에 좋은 계명아트센터가 있어 한국 초연 10년 만인 2010년, 드디어 대구에서도 ‘오페라의 유령’ 막을 올리게 된 것이다.

제작진은 이번 공연에서 가장 매력적인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1년여 전부터 계명아트센터의 천장과 무대구조를 실측, 설계를 하며 대구 무대를 준비해 왔다. 공연 도중 1톤 무게의 대형 상들리에가 13미터 높이의 천장에서 객석으로 곤두박질치고, 오페라하우스가 5초 만에 안개 자욱한 지하 호수로 뒤바뀌는 무대 등은 그 어느 뮤지컬에서도 볼 수 없는 엄청난 장면들을 재현해낸다. 특히, 이번 공연은 퀄리티 높은 감동을 전달할 수 있도록 가사 작업에 공을 들이는 한편, 주역들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진귀한 무대를 선보인다. 또한 국내외의 최고 음악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는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매우 수준 높은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공연의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다.

오랜 준비 기간과 쉽게 공연될 수 없는 무대라는 것, 또한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대구에서 그 무대가 열린다는 점에서 ‘오페라의 유령’ 대구 공연은 더욱 의미가 깊다. 더구나 대구 공연을 끝으로 한국어 공연이 막을 내리기 때문에 ‘오페라의 유령’ 한국어 무대는 최소 10년 정도, 혹은 그 이상을 기다려야 할 수밖에 없다.

2차 티켓 예매 가능한 공연 기간은 2010년 10월 21일부터 2010년 12월 5일까지다. 또한 2차 예매가능 공연에 포함되는 12월 가격은 10, 11월 가격과 차등제를 적용하여 VIP 14만원, R 12만원, S 9만원, A 5만원이다. 이는 서울 공연에서 국내 처음 도입한 티켓시즌제를 동일 적용한 것으로, 시기별 공연 수요의 변화에 맞춰 티켓 가격이 탄력적으로 변동되는 합리적인 시스템이다. 공연 시장 성수기 12월을 피한다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볼 수 있다.

최고 음향 시설과, 조명 시설, 객석 시스템에서 이미 세계 아티스트 및 뮤지컬 관계자들의 극찬을 받고 있는 계명아트센터는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오페라의 유령’을 공연함으로써 한국 뮤지컬 역사에 그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

공연 기간 : 2010. 10. 21 ~ 2011. 1. 2

공연 시간 : 평일 오후 8시 / 토요일 오후 3시, 8시 / 일요일 오후 2시, 7시

문의 : (053)762-0000

계명대 발행도서, 학술원 우수도서 선정

계명대 출판부에서 간행한 '셰익스피어와 현대비평' (김종환, 계명대 영어영문학과 교수)과 '근대 한국의 자본가' (김일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2종이 '2010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 학술도서'에 선정됐다.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 학술도서는 학술출판 활동 고취 및 지식문화 산업의 핵심 기반산업으로 출판 산업을 육성·지원하려는 뜻에서 해마다 뽑고 있다.



생활과 심리학

손영화 (계명대 심리학과 교수) **지음 / 학지사 펴냄**

일상 생활에서 자주 경험하는 일이 사람의 심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 심리학 이론과 개념을 속담과 연결하여 좀더 쉽게 정리했다. 기억, 사고와 문제 해결, 동기와 정서, 성격, 사랑과 성 심리, 대인 관계에서의 인간 심리와 행동, 태도 변화, 집단에서 인간 행동 등 인간 심리 기초부터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제까지 다루고 있다.

38
39

인간사, 삼국유사의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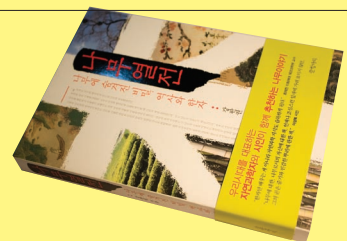
이종문 (계명대 한문교육과 교수) **지음 / 글항아리 펴냄**

고등학교 때부터 '삼국유사'에 관심이 있던 저자가 여러 문헌과 자료를 찾아보고 연구하며 10년이 걸려 완성한 책. 삼국유사를 쓴 일연 스님이 마지막으로 살았던 인간사가 처참하게 버려져 있는 것을 보고, 그때 느낀 아픔과 인간사에 담긴 이야기를 알리려고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시대에 따라 인간사가 달라진 모습, 남아 있는 유물과 그에 얽힌 이야기들, 인간사 복원 방안 등이 나타나 있다. 1993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한 시인이기도 한 저자의 글 솜씨가 재미를 더하는 책이다.

나무열전

강판권 (계명대학교 사학과 교수) **지음 / 글항아리 펴냄**

'나무사전', '어느 인문학자의 나무 세기' 같은 책을 펴냈으며 모든 것을 나무로 생각한다는 강판권 교수가 쓴 친절한 나무 이야기. '숲을 바라보며', '숲에서 쭈는 한자', '숲을 나오며' 이렇게 3부로 나뉜 이 책에서 저자는 나무의 일반 속성과 40종의 나무 이야기, 저자의 체험이 녹아 있는 나무 철학을 한자 이야기와 더불어 흥미진진하게 풀어놓는다. 장인어른을 왜 '춘부장'이라고 하는지, 화촉은 왜 자작나무로 밝히는지, 나무의 쓰임새와 관련한 우리 문화의 다양한 모습도 알 수 있는 교양서이다.



WHAT'S NEW

계명대 재학생, 공자아카데미 장학생 대거 선발

중국 공자아카데미 총본부에서는 최근 2010년도 장학생 선발에서 박현지(중국학과 3년) 학생 등 계명대 소속 학생 12명(석사과정 6명, 장기여학연수과정 6명)이 최종 선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발된 학생들은 8월부터 중국 북경어언대학에 파견되어 여학연수과정 5백 5십여만원, 석사과정 2천 4백여만원 등 12명이 총 1억 8천여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 각국의 우수한 학생 및 중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중국에서 중국어를 연구,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각 지역 공자아카데미와 외국 주재 공관을 통하여 우수한 학생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후 선발하는 이 장학생에 선발되면 중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학비와 기숙사비 전액 뿐 아니라 정착비와 월 생활비도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패션대학 재학생, 제21회 대한민국텍스타일디자인대전에서 대거 수상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주최하고 지식경제부,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후원으로 최근 열린 '제21회 대한민국텍스타일디자인대전'에서 조지혜(패션디자인과 졸업생)씨가 영예의 대통령상을 이재웅(텍스타일디자인과 4년)학생이 국무총리 상을, 이승엽(텍스타일디자인과, 2년)학생이 한국생산연구위원장을 각각 수상했다.

신인 텍스타일 디자이너 발굴 및 지원 육성하고 고부가가치화 된 텍스타일제품디자인의 개발과 섬유산업발전을 목적으로 열린 이 대회에서 조지혜씨는 'Africa BEAM-자연에 방목된 감성의 땅'이라는 제목의 디자인 작품으로 영예의 대통령상과 7백만원의 상금을 받게 됐다. 이재웅 학생은 '고전과 현대의 만남'이라는 제목의 다마스쿠스 패턴을 이용한 월페이퍼 작품으로 국무총리상과 함께 상금 5백만원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조씨는 자신의 패턴디자인이 적용된 코트와 반바지 작품을 통해 방목된 감성을 바탕으로 아프리카의 호전적이고 리드미컬한 이미지를 전통의 타투 문양에 입체적으로 스티칭 하여 역

동적이고 혁신적인 느낌을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들 작품은 8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인터텍스타일 상하이 홈 텍스타일(InterTextile Shanghai Home Textiles 2010)' 전시회와 9월에 열리는 '프리뷰 인 서울(Preview in SEOUL 2010)' 전시회에도 전시되기도 했다.

계명대, 카자흐스탄 알마티시와 MOU 체결

계명대(총장 신일희)는 8월 5일(목) 카자흐스탄 알마티시와 의료 지원 및 교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하고 이와 관련하여 알마티 갈라콘서트, 알마티 사진전 및 민속유물전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함께 개최했다.

신일희 계명대 총장, 예시모프 알마티시장 등 양 기관 주요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의료진 교류 협력 ▲의료경영 기법 전수 ▲의료시설 현대화 ▲지속적인 의료봉사활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약서에 서명하고 향후 양 기관의 의료협력 관계를 지속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계명아트센터에서는 아바리카자흐국립오페라발레단과 알마티 국악단, 민속악단이 펼치는 알마티 갈라콘서트가 개최되기도 했다.



식품영양학과 재학생, 농림수산식품부 주최 UCC 대회 1·2위 수상

황동준·구현화(식품영양학과 2년) 학생은 9월 10일(금) 농림수산식품부 주최 '쌀과 함께하는 건강한 생활 UCC 대회'에서 학생부 1위, 2위를 나란히 차지해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상장과 상금 50만원, 30만원을 각각 수여 받았다.

황동준 학생은 '쌀의 여신'라는 제목으로 누룽지를 활용한 카나페를 개발했고 구현화 학생은 '쌀과 밀, 우리는 절친'이라는 제목으로 쌀과 밀의 혼합반죽을 활용한 또띠아와 쌀가루로 만든 디핑소스를 선보인 디지털 동영상상을 제출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조성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계명대, 파키스탄 National University of Modern Languages와 MOU 체결

계명대는 10월 8일(금) 파키스탄 National University of Modern Languages(총장 아지즈 아마드 칸, Aziz Ahmad Khan)와 ▲교수 교류 ▲학생 교류 ▲공동 연구활동 ▲교육정보 및 기자재 교류 ▲특별 단기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류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관련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이번 협정을 통해 최근 우리나라와 파키스탄과의 무역 및 인적자원 교류 증가에 따른 학술 및 교육 교류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파키스탄 NUML(National University of Modern Languages)과 함께 파키스탄 국민 대상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 연수프로그램의 개발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HELO HEAD LOCK’ GM대우 디자인공모전 우수상 수상

이준교(산업디자인과 4년) 학생은 9월 10일(금) GM대우에서 주최한 ‘Got Talent? 2010 디자인 공모전’에서 ‘HELO HEAD LOCK’작품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GM대우에서 상상력이 풍부한 예비디자이너 발굴을 목적으로 학력, 연령 등의 제한을 두지 않고 기획한 이번 공모전에서 그는 저탄소 녹색캠퍼스를 지향하는 계명대 정책에서 그린디자인을 착안, 도난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는 자전거를 디자인한 작품 ‘HELO HEAD LOCK’을 출품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예술성, 실용성이 아주 뛰어난 디자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준교 학생은 우수상 상패, 상금 100만원 수상과 함께 GM대우 디자인부문 입사 지원 시 지원자격과 무관하게 서류심사 면제, 가산점 부여라는 특혜를 제공받게 됐다. 그는 “평소 표현하고 싶었던 디자인이 많아 맘껏 상상하고 즐기면서 이번 공모전을 준비했는데 뜻밖에 큰 상까지 받게 돼 너무 기쁘다.”며, “창조성, 예술성, 실용성을 두루 갖춘 유능한 디자이너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연극예술과 창작뮤지컬, 제10회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에서 대상 및 연기상 수상

연극예술과의 창작뮤지컬 <라이크 어 스타(Like A Star)>가 8월 1일(일) 제10회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대학극전에서 작품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9회째까지 대상이 4번밖에 나오지 않았을 정도로 엄정한 심사로 정평이 난 극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찬사를 받았으며, 순수하게 학생들이 창작, 작곡, 연출을 맡은 작품이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박정우(연극예술과 2년) 학생은 뛰어난 가창력과 연기력을 바탕으로 연기상을 수상하는 큰 성과를 얻기도 했다. 전직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였던 주인공(권혁진)이 뮤지컬 배우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내용의 <라이크 어 스타>는 김동훈(연극예술과 4년) 학생이 작품을 쓰고 연출을 맡았다.

동산장학재단 장학증서 수여식 열려

동산장학재단(이사장 신일희)은 9월 16일(수) 계명대 행소박물관 시청각실에서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경제사정이 어렵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지은(경영학과 3년)양 등 고등학생 20명을 비롯해 계명대 기계자동차공학부 김진규 등 학부생 48명, 대학원생 7명, 계명문화대생 10명 등 총 85명에게 1억 4천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동산장학재단은 지난 1993년 6월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학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장학금, 연구비를 지급하고 학술 자선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신일희 박사가 설립해 이사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2010년 9월 현재 기본재산 69억원으로 성장해 현재까지 국내·외 1,300여명의 학생들에게 11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활발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패션대학, 대학 최초 IPTV를 활용한 양방향 교육서비스 실시

패션대학(학장 이승훈)과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 원장 박광진)은 상호 교류 협력 하에 지역 패션산업을 리드할 인재양성을 위하여 대학 최초로 IPTV를 활용한 교육서비스를 개시, 지난 13(금)일에 패션대학 패션마케팅학과를 서두로 하여 패션디자이너, 텍스타일디자이너학과의 콘텐츠가 IPTV를 통해 방영되고 있다.

패션대학은 기존 학과수업방식의 교육과, 인터넷 중심의 e-Learning 교수법에서 더 나아가 디지털문화에 익숙한 신세대에게 새로운 교수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IPTV 서비스를 차세대 교육매체로 활용하고자 지난해 12월부터 패션 콘텐츠개발을 DIP와 함께 진행해왔다.

이번에 서비스되는 교육방식은 Open-IPTV와 더불어 IPTV분야의 새로운 기술적 채널 이슈인 CUG(Closed User Group)를 활용한 것으로, CUG는 본 방송 외에 특정 목적성방송을 송출하는 전문 채널 서비스이다.

CUG서비스가 지역 중심의 채널권역에서 전국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번 서비스 모델은 재학생 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의 사후 교육시스템으로 활용하도록 추진됐다. 해외 프로젝트, 패션쇼/전시회 및 산학협력과정 등 재학생들의 활동 및 졸업생들의 현황 인터뷰, 산업동향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김호연·김종규 교수,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후즈후’ 등재

김호연(경제금융학과) 교수와 김종규(공중보건학과) 교수는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0년판에 등재되었다. 김호연 교수는 ‘산출-산출 경제학(Output-Output Economics)’이라는 새로운 경제학 영역을 개척해 여러 영역에서 널리 활용되면서 학문적 업적을 인정받아 등재되었으며, 김종규 교수는 ‘Marquis Who's Who in Science and Engineering’ 2011 ~ 2012판에도 등재될 예정이다.

WHAT'S NEW

허용·신희원·김상홍 교수, 제30회 대구시 문화상 수상자로 선정

허용(서양화과)·신희원(피아노과)·김상홍(사회체육학과) 교수는 제30회 대구시 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허용·신희원 교수는 예술분야, 김상홍 교수는 체육분야 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시상식은 10월 15일(금)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대구시 문화상은 지역의 문화예술 창달과 전통문화의 창조적 개발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사람을 발굴·격려하기 위해 1981년부터 매년 시상해 왔으며 2009년까지 29회에 걸쳐 189명에게 시상했다.

허용 교수는 한국미술협회 대구지회장을 역임하며 대구 구상회화를 주도하는 '한유회'를 결성, 신인 작가 발굴과 지역 화단의 전통을 계승하는데 기여했으며, 신희원 교수는 '현대 피아노음악 연구회'를 창립, 대구 지역 작곡가들의 작곡의욕을 고취하고 소외계층에게 음악 교육을 통한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김상홍 교수는 계명대 스포츠산업대학원장을 지내면서 육상 우수 선수를 발굴하고 체육연구자와 후진 양성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국학연구원, 한국학 국제학술대회 개최

한국학 연구원 주관으로 10월 20일(수)부터 22일(금)까지 '현실의 예술화, 예술의 현실화 - 한국 전통예술의 생태학적 상상력'이라는 주제로 한국학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예술이 작품으로 감상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사람들의 감각을 고양하고, 삶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그 초점을 맞춰 생태, 생태 교육에 관심을 가진 예술 분야의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그

문제의식을 예술 현장에서 직접 실천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우리나라를 비롯 영국, 독일, 일본, 중국 등 국내외 학자 50여명이 대거 참석했으며, 특히 대구에서 생활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곽도시로서의 대구의 면모를 살피고 있는 제임스 그레이슨 교수(영국 셰필드대 동아시아학과)의 '성곽도시 대구의 재발견 및 향후 대책'이라는 주제 발표가 주목받았다. 2001년에 처음 개최돼 4회째를 맞는 국제학술대회는 3년을 주기로 열린다.



김기진 교수, 대한민국체육상 연구상 수상

김기진(체육학과) 교수는 제48회 대한민국체육상 연구상 수상자로 선정돼 15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상을 받았다. 대한민국체육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 체육진흥에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는 상이다. 김교수는 국내 스포츠과학(운동 생리학)분야를 대표하는 연구자 중 한명으로 손꼽히며, 그동안 300여 편의 연구논문과 30여편의 저술, 100여 차례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등으로 스포츠과학 발전에 힘쓴 공로를 이번에 인정받았다.

명교생활관 협력동(기숙사) 준공식 가져

계명대는 8월 23일(월) 학생기숙사인 명교생활관 협력동 준공식을 가졌다. 명교생활관 협력동은 지하 1층, 지상 10층, 연면적 8,838.64㎡(2,673.69평) 규모로 186개의 방과 멀티미디어실, 세미나실, 휘트니스룸, 세탁실, 휴게실, 학습실 등이 갖춰져 있다. 이번 준공으로 학생기숙사는 모두 7개동이 됐으며, 수용인원은 1,738명에서 2,110명으로 늘었다.



태권도학과, 베트남 공안부 태권도센터에 재학생 10명 파견

태권도학과 재학생 10명은 9월 28일(화) 베트남 공안부 체육관내에 설치되는 태권도센터에 파견돼 12주간 베트남 공안부 요원과 학생 그리고, 하노이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태권도 교육을 실시한다.

계명대는 베트남 공안부와 2009년 2월 체육지도자 및 선수 교류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하고, 베트남 공안부 간부 및 태권도 선수들의 계명대 방문 및 전지훈련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진행한 결과, 베트남 공안부로부터 한국태권도의 선진 이론과 기술을 계명대를 통해 베트남에 보급하고 싶다는 제의를 받게 됐다.

이에 양기관은 2010년 9월 1일(수) 신축된 베트남 공안부 체육관내에 태권도센터와 태권도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어학당을 설치하기로 합의하는 협정서를 체결하고, 후속 조치로 태권도학과 재학생 10여명을 현지 태권도센터에 파견하며, 한국어학당은 하노이 근교 다이웬대학에 파견되어 있는 교직원 이송백씨(계명대 국제교육센터)가 맡아 운영할 예정이다.

배영상(체육대학) 학장은 “이번 교류 협력이 베트남 공안부 및 공안대학교에서 교육되고 있는 일본 ‘카라테’를 제치고, 태권도를 베트남 공안부의 정규과목 혹은 중심 무도종목으로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베트남 63개성 전역에 우리나라 태권도를 보급함으로써 또 다른 한류 열풍을 일으킬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1회 모의국제평화회의의 개최

대학생들의 외국어 구사능력 증진과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제1회 모의국제평화회의가 10월 26일(화) 신바우어관에서 열렸다. 국제학대학 학생회가 마련한 이 행사에서 이태식 전 주미대사가 특강을 했고 중국과 일본, 미국, 그리고 유럽과 중남미 대표를 맡은 국제학대학 소속 학생들이 나와 바람직한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을 주제로 원어 토론을 벌였다.

김수학 대구지방법원장 초청특강 개최

계명대는 ‘현대사회와 법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김수학 대구지방법원장을 초청하여 10월 25일(월) 계명대 행소박물관에서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법경대학 재학생 등 200여명의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지방법원과 지역 5개 대학 학술교류협의회 개최에 앞서 진행되었으며, 판사, 검사, 법원 공무원, 검찰청 공무원 등 법학도의 다양한 진로와 이를 이루기 위한 방법 등 취업과 관련된 설명과 대구지역 배심원제도 활성화와 법원의 인식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강연했다.



대구텍(주)과 MOU 체결

계명대는 9월 8일(수) 대구텍(주)과 ▲주문식 교육 제공 ▲경영혁신/품질향상/전문가 양성 협력 ▲교수 교류 협력 ▲우수졸업생 우선 고용 ▲교육 설비/기자재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학협력 MOU를 체결하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모세사론 대구텍(주) 대표이사의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 초청특강 개최

계명대는 ‘남북관계의 현황과 한반도의 미래’라는 주제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초청하여 10월 12일(화) 국제학대학에서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현황을 짚어보고 향후 남북관계의 방향과 한반도의 미래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한 아일랜드 대사 학생과의 약속 지켜

에이먼 맥키(Eamonn McKee) 주한 아일랜드 대사가 이다은(국제관계학 3년) 학생과의 소중한 약속을 지켰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주한 아일랜드 대사의 계명대 특별강연 약속.

지난 5월 이다은 학생은 맥키 주한 아일랜드 대사

에게 학회 차원의 외교분야 연구 및 조사를 위해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방문 및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맥키 대사가 나중에 공식적으로 초청을 해주면 일정을 조정해 직접 계명대에 특별강연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이번 특별강연 개최로 이뤄지게 됐다. 당시 이다은 학생과 국제관계학과 학생들은 말로만 하는 약속으로 생각하고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근대 정말 약속을 지켜 초청특강 일정을 계획할 때는 날아갈 듯이 기쁘고 뿌듯했었다고 한다.

이에 이다은 학생은 당일 부인과 함께 참석한 맥키 대사에게 약속을 지켜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와 함께 감사의 뜻으로 꽃다발을 전달했으며, 맥키 대사, 부인과 함께 환담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10월 14일(목) 행소박물관 시청각실에서 개최된 이번 특강은 맥키 대사가 지리, 경제, 사회, 문화 등 아일랜드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며 시작돼, “역사는 국민을 어떻게 형성하는가?”라는 주제로 역사가 한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와 올바른 역사 정립이 왜 중요한 지에 대해 역설했다.



김도윤 학생, 교육과학기술부 2010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김도윤(경영학과 4년) 학생은 교육과학기술부 2010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는 다양한 공익적인 사회활동을 통해 인정 및 리더십이 뛰어난 점이 높게 평가돼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인재상은 지난 2001년 제1회 수상자 배출로 시작으로 7회까지 ‘21세기를 이끌 우수인재상’ (장관상)으로 운영됐으나, 지난 2008년부터 ‘대한민국 인재상’으로 명칭을 바꾸고 대통령이 직접 시상해 왔으며, 올해 대구지역에선 고등학생 3명, 대학생 2명이 선정됐다.

WHAT'S NEW

동산의료원, 2014 뉴비전 선포식 거행

동산의료원은 10월 15일(금) 대강당에서 600여 명의 교직원이 모인 가운데 '2014 뉴비전 선포식'을 거행했다. 2014 뉴비전 선포식은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정순모 이사장의 기도, 신일희 총장의 격려사에 이어 뉴비전에 대한 설명과 비전을 향한 교직원들의 다짐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직종별 구성원 대표 7명이 '우리의 다짐'을 선언하고, 차순도 동산의료원장과 정철호 동산병원장을 비롯한 11명의 운영위원이 함께 결의문을 낭독한 것이다. 전 구성원은 2014년 새 의료원 건립을 앞둔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의료원 집행부와 교직원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자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후 뉴비전을 새긴 카드를 패용하는 식을 가졌고, 한 목소리로 "새병원 건립, 동산의료원을 위하여!"와 "새로운 100년 글로벌 동산의료원을 위하여!" 구호를 제창했다.

동산의료원이 새롭게 확립한 비전은 '친절과 감동이 샘솟는 병원 /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 혁신경영으로 미래를 여는 병원 / 선교·교육·연구를 선도하는 병원'이다. 비전을 향한 실천과제도 선정했다. 전 구성원이 고객불편 해결사가 되어 친절을 실천하고, 나눔과 봉사로 사회공익을 실현하며, 환우의 평생주치의로서 맞춤형 진료를 추구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도입해 구성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암센터 확장 이전 조혈모세포 이식센터와 한국와 이즈만 암백신연구소도 개소

동산병원은 9월 27일(월) 새로 확장 이전한 암센터에서 대구시 남동군 정무부시장, 정순모 이사장, 신일희 총장, 한국와이즈만 모지현 대표, 안동병원 강보영 이사장, 대구테크노파크 이종섭 원장, 정귀애 대구간호사회장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암센터 확장 이전, 조혈모세포 이식센터 신설, 한국와이즈만 암백신연구소 개소식'을 가졌다.

300여평 규모의 전용 공간으로 거듭난 암센터에는 외래 진료공간, 화학요법제 주사실, 조혈모

세포이식센터를 비롯하여 전문간호사실, 교육장, 채혈실까지 구비하게 되었으며, 대구·경북 지역 최초로 병원 암 등록사업까지 한다.

진단부터 수술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소화하고 통합진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암센터는 환자의 경제적인 부담과 대기시간을 줄여주기 위해 '낮병동 시스템'을 도입했다. 항암화학요법 주사실을 6병상에서 총 15병상으로 확장해 입원 치료를 외래 치료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혈액암환자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치료를 위해 조혈모세포이식센터를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이로써 고형암,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에게 이상적인 암 치료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 최초로 문을 연 '한국와이즈만 암백신연구소'는 한국에도 암 백신 시대를 예고하며 대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공에 크게 한 몫 할 것으로 보인다.



동산의료원, 파키스탄 대홍수 의료구호성금 3천2백만원 전달

동산의료원은 한국-카슈미르협회, 계명카리타스, (사)대구경북국제교류협회, (사)아카데미아 후마나, (사)동산의료선교복지회와 연합해 파키스탄 돕기에 나섰다.

동산의료원은 국내외 사랑의 봉사를 꾸준히 실천해 온 이들 단체와 함께 지난 7월말 최악의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을 돕기 위해 지원금 3천2백만원을 모았으며, 계명대학교 신일희 총장과 동산의료원 손은익 대외협력처장(한국-카슈미르협회장)이 10월 8일(금) 쇼캇 알리 무카담(Shaukat Ali Mukadam) 주한 파키스탄 대사에게 이들 단체를 대표해 지원금을 전달했다.

지난 2005년 파키스탄 대지진 현장에서 긴급의료봉사활동을 펼쳤던 동산의료원 손은익 교수(신경외과)는 "파키스탄 수재민들을 위해 동산의료원에서 의료봉사단을 파견코자 했으나 현지사정상 입국이 어려워 다른 방법으로 수재의연금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여러 단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힘을 모은 만큼, 홍수로 가족과 집을 잃은 파키스탄 국민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치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제2의 도약, 새로운 100년, 글로벌 동산의료원’ 만들자 개원 111주년 맞아 자랑스런 동산인상 시상도 가져

개원 111주년을 맞은 우리 의료원이 ‘제2의 도약, 새로운 100년, 글로벌 동산의료원’을 비전으로 희망찬 결의를 다졌다.

동산의료원은 10월 1일(금) 대강당에서 교직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111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기념예배는 정철호 병원장의 기도와 오정윤 목사의 말씀, 의료원 성가합창단의 특송에 이어 차순도 의료원장의 기념사와 ‘제5회 자랑스런 동산인상’에 선정된 교직원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차순도 의료원장은 111주년 기념사에서 “우리 의료원은 급격한 시대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의료원 건립과 최신 의료장비 도입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100년을 넘어 세계 속의 동산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자랑스런 동산인상 수상자 △교수부문 송광순(정형외과), 권중혁(영상의학과), 권지윤(약리학교실) △전공의부문 신재욱(외과) △직원부문 권은혜(병동간호1팀), 이은영·김영미(특수간호팀), 최희돈(총무인사팀), 정근표(의공학과), 차원석(진단검사 의학기술지원팀), 송은경(영상의학기술지원팀) △Fletcher상 황장규(핵의학과) △Stone상 최필남(병동간호2팀) △Moffett상 최순정(물리지원팀) △우수부서상 소아청소년과, 복지증진팀, 75병동 △우수협력병원 미즈맘여성병원 △우수협력의원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북지부,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 △협력상 국제시스템(주차관리), 윤세룡(자원봉사자) △McGaw상 정우영(계명대 미술대학 사진영상학과 교수)



해외동포 의료관광사업 확대, 세계한상대회에서 의료지원 및 상호협력 MOU 체결

계명대 동산의료원(원장 차순도)이 세계한상대회를 계기로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의료관광사업을 확대한다.

동산의료원은 제9차 세계한상대회가 열리는 10월 19일, 20일 대구엑스코에서 워싱턴한인상공회의

소(회장 김성찬), 국제한인식품주류상 총연합회(회장 한웅용), 미주한인회총연합회(총회장 남문기), 심양한국인상회(회장 권유현)와 함께 의료지원과 상호협력을 다짐하는 MOU를 체결했다.

동산의료원은 MOU체결단체의 회원에게 진료우대와 협진위원의 한방진료 혜택도 제공한다. 또한 회원들을 위한 맞춤형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차순도 동산의료원장은 “우리 동포들을 위한 의료관광사업이 활발해진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메디시티 대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건강검진뿐 아니라 가장 필요로하는 진료분야와 관광코스를 접목해 동포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문기 미주한인회 총연합회장은 “250만 미주한인이 대구와 영남지역을 방문할 경우 111년 역사 속에 우수한 의료진과 진료시스템을 갖춘 동산의료원에서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송광순 교수 ‘소아 팔꿈치 골절’ 새 치료법 세계 주목 받아 ‘소아 상완골 외과골절’ 진단· 수술법 발표

정형외과 송광순 교수가 제시한 소아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팔꿈치골절인 ‘소아 상완골 외과골절’에 대한 진단법과 치료법이 전세계적으로 높은 평가와 주목을 받고 있다.

송교수는 전세계에서 35년간 정설로 여겨왔던 ‘소아 상완골 외과골절’에 대한 기존의 치료법과 달리, 무조건 상처부위를 절개하지 않고 피부 밖에서 뼈조각을 맞춘 뒤 핀으로 고정하는 수술법을 개발했다. 심한 골절도 절개하지 않고 도수정복(손으로 절개하지 않고 전위된 골편을 제자리로 정복하는 방법)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이 결과는 정형외과분야 세계 최고의 권위자인 JBIS(Journal of Bone and Joint Surgery)에 2007, 2008년 연속으로 발표되었으며 우리 의료원과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경북대학교 병원 등 국내 3개 대학병원에서 동시에 시행한 결과가 그 치료

방법의 정당성과 효용성이 증명되었다.

또한 송교수는 이 연구 결과로, 지난 5월 최고 권위의 세계학술대회인 북미소아정형외과학회(POSNA)와 아시아태평양정형외과학회(APOA)의 합동 학술대회 연수강좌에 동양인으로서는 드물게 연자로 초청받기도 했으며, 강연 내용은 ‘2011년 Journal of Pediatric Orthopedics’에 발표될 예정이다.

대구·경북 최초 가장 빠르고 정확한 최첨단 CT 도입

동산병원은 CT 중 가장 정밀한 진단 정보와 빠른 촬영시간, 방사선 피폭량을 대폭 감소시킨 최첨단 ‘128채널 이중검출기 CT’ (독일 지멘스사)를 도입했다.

대구·경북지역 최초로 도입한 첨단 128채널 이중검출기 CT는 세계의 우수 병원에서만 사용중이며, 국내에서는 7개의 병원에만 도입되어 있다. 이중검출기 CT는 1개 튜브에 최고 64개의 검출기가 있는 기존의 CT와는 달리, 128개의 검출기와 2개의 튜브가 있어 촬영시간이 4분의 1로 감소돼 따라 노인, 어린이, 응급환자 등 숨을 참기가 어려운 환자들도 빠르고 정확한 검사가 가능하게 됐다. 특히 움직이는 심장의 관상동맥을 촬영하는데 효과가 탁월하고 방사선 피폭량도 현저히 감소된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10월 5일(화) 11시30분 영상의학과에서 ‘128채널 이중검출기 CT 도입 및 초음파실 확장이전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차순도 동산의료원장, 정철호 동산병원장, 이성문 영상의학과장 등 병원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커팅식과 장비 소개시간을 가졌다.



계명대학교 발전기금 조성안내

대학발전기금조성, 동참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소중히 받들겠습니다.

기부금은 현금이나 현물, 유가증권, 주식, 부동산 등 어떤 형태라도 가능하며, 개인·단체 구별없이 누구나 기금조성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발전기금의 약정은 전화,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신 후 연락주셔도 됩니다.

계좌번호 : 대구 086-04-000434-7 / 국민 644-01-0032-361

우리 1006-601-275545 / 우체국 703454-01-000838

농협 150077-51-001831 / 기업 370-030302-01-018

연락처 : 계명대학교 대외협력처 **웹페이지** : <http://fund.kmu.ac.kr>

전화 : (053)580-6323 **팩스** : (053)580-6325



우리은행 발전기금 2억원 전달

최철암 우리은행 개인고객본부행장을 포함한 은행 관계자가 지난 4월 20일(화) 학교를 방문하여 후학 양성을 위한 발전기금 2억원을 전달했다.



삼익THK(주) 진영환 회장 발전기금 2억원 쾌척

삼익THK(주) 진영환 회장을 포함한 회사 관계자가 지난 6월 9일(수) 학교를 방문하여 발전기금 2억원을 쾌척했다. 진영환 회장은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운용해 달라며 기부의 뜻을 전달했다.



(주)삼한씨원 한삼화 회장 발전기금 2억원 쾌척

(주)삼한씨원 한삼화 회장은 지난 9월 28일(화) 학교를 방문하여 후학양성을 위한 발전기금 1억원을 쾌척했다. 한삼화 회장은 지역기업으로서 지역대학의 후학을 위해 기부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며 기부의 취지를 밝혔다.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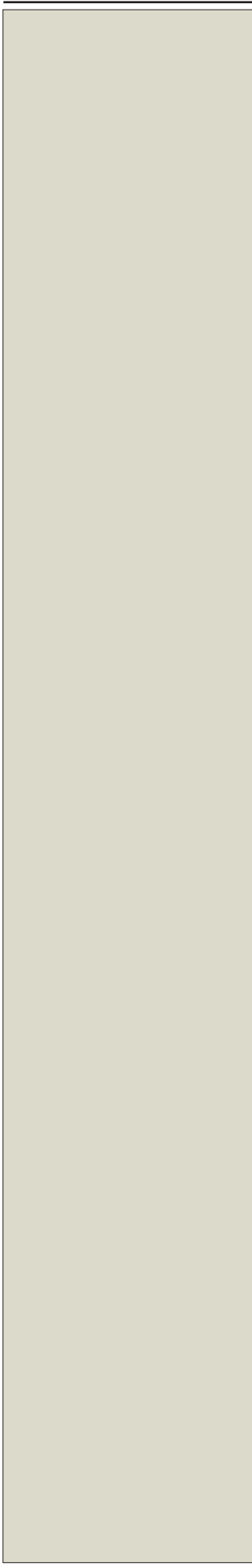
2010. 4. 16 ~ 2010. 10. 15

교수, 직원

강문식	2,220,000
강세영	600,000
강영욱	5,210,000
강판권	3,340,000
계정민	300,000
고병철	100,000
공성훈	300,000
곽성우	300,000
권성규	600,000
권업	2,580,000
권영숙	2,520,000

권지훈	300,000
기도형	600,000
김경미	200,000
김경찬	540,000
김군찬	600,000
김권구	2,820,000
김기석	600,000
김기진	300,000
김기혁	13,600,000
김난희	600,000
김남균	120,000
김남영	340,000
김대경	100,000

김명애	1,200,000
김민정	600,000
김배환	600,000
김범준	300,000
김복규	100,000
김상현	1,000,000
김상홍	2,820,000
김선	2,580,000
김선정	600,000
김성미	200,000
김성숙	600,000
김성훈(기계자동차공학부)	600,000
김성훈(교육학과)	300,000



김수봉	600,000	박병춘	600,000	이문규	600,000
김승민	1,200,000	박상범	300,000	이백	600,000
김신혜	660,000	박상원	600,000	이병로	390,000
김영문	600,000	박세정	100,000	이병수	600,000
김영진	120,000	박아청	200,000	이병찬	2,520,000
김영철(건축학과)	300,000	박영태	540,000	이병환	100,000
김영철(공중보건학과)	2,901,000	박영호	300,000	이부윤	600,000
김완준	3,180,000	박용진	3,000,000	이삼빈	300,000
김용일	1,950,000	박우현	2,400,000	이선봉	600,000
김원진	600,000	박재황	300,000	이선장	300,000
김윤조	300,000	박주홍	390,000	이선희	600,000
김인수	2,820,000	박준식	600,000	이성노	300,000
김장환	300,000	박준태	160,000	이승한	2,520,000
김재두	300,000	박진석	600,000	이승훈	1,980,000
김정구	600,000	박천만	600,000	이승희	360,000
김정규	300,000	박혜선	300,000	이시경	100,000
김정배	600,000	박희구	100,000	이양섭	600,000
김종규	600,000	방대욱	940,000	이에스더	1,000,000
김종덕	980,000	배석천	2,460,000	이영	600,000
김종세	300,000	배영상	10,020,000	이영기	2,820,000
김종영	2,820,000	배재영	540,000	이영찬	600,000
김종환(영어영문학과)	540,000	배창범	120,000	이원재	300,000
김종환(총무팀)	600,000	백승욱	100,000	이원호	300,000
김주봉	2,280,000	변재웅	1,000,000	이은희	1,200,000
김중순(경영공학과)	600,000	변홍식	200,000	이인선	8,000,000
김중순(한국문화정보학과)	600,000	서근섭	1,800,000	이재길	300,000
김중호	180,000	서정수	120,000	이재천	600,000
김진상	100,000	손유익	100,000	이종광	1,200,000
김창재	2,460,000	손재영	300,000	이종국	300,000
김철수	3,000,000	송영정	1,250,000	이종한	2,500,000
김춘해	4,300,000	송형석	300,000	이주형	300,000
김태권	600,000	신승헌	600,000	이중희	2,520,000
김택수	300,000	신인숙	2,520,000	이진호	540,000
김판희	300,000	신지숙	600,000	이창섭	540,000
김학윤	600,000	신현명	600,000	이철근	600,000
김한림	1,000,000	안봉근	2,160,000	이충권	120,000
김한수	2,160,000	안재범	120,000	이태관	600,000
김해동	600,000	엄우웅	300,000	이필환	3,400,000
김혁일	300,000	여박동	1,440,000	이한영	1,500,000
김현수	200,000	오우성	1,800,000	이혜정	200,000
김현옥	300,000	오익근	2,050,000	임경수	1,800,000
나성영	600,000	유가호	800,000	임대근	250,000
남재열	2,440,000	유연옥	300,000	임문혁	3,100,000
류건우	2,520,000	유옥희	600,000	임운택	600,000
류두하	360,000	유호욱	900,000	임진수	1,200,000
류재성	300,000	윤광렬	300,000	장덕성	100,000
민경모	600,000	윤영진	100,000	장병옥	2,520,000
민경진	3,120,000	윤영태	2,520,000	장원재	180,000
박광성	250,000	윤원희	300,000	전경태	1,260,000
박기현	100,000	이규형	300,000	정근준	120,000
박남환	360,000	이대주	600,000	정막래	6,000,000
박동완	100,000	이동수	100,000	정문영	300,000
박명호	840,000	이로리	300,000	정병두	600,000
박미경	600,000	이명균	600,000	정승학	600,000
박민수	120,000	이명환	300,000	정용주	300,000

정용진	28,160,000
정우영	300,000
정우호	3,000,000
정재엽	2,400,000
정중호	600,000
정진갑	540,000
정철호	2,400,000
정현희	300,000
정홍	820,000
제해성	1,420,000
조주현	600,000
주광지	200,000
주홍택	100,000
차순도	2,580,000
차유미	500,000
채용웅	300,000
천우광	300,000
최두선	180,000
최명숙	300,000
최봉기	2,620,000
최상호	2,760,000
최성곤	300,000
최성우	600,000
최우정	580,000
최은정	650,000
최재성	2,520,000
최종렬	600,000
최하늘	300,000
최해운	600,000
하영석	900,000
하정봉	100,000
하정철	300,000
하지수	600,000
한문식	1,860,000
한복희	400,000
한여동	200,000
함옥상	200,000
허경미	600,000
허도화	1,800,000
허정명	360,000
호광수	600,000
홍동권	100,000
홍미정	400,000
홍성희	600,000
홍순희	150,000
홍승표	600,000
황병훈	300,000
황일권	1,520,000
황재광	480,000
황재범	1,800,000
Michael C. E. Finch	600,000
Muller, Retief	120,000
Omnus, Wiebke Beatrice	300,000

동문, 재학생

(주)석창호	300,000
(주)세방건설	50,000,000
(주)해성오피스탑	600,000
간호대동창회	9,374,000
간호대학 2006학년도 졸업생일동	2,270,000
간호대학 2007학년도 졸업생일동	1,500,000
간호대학 2008학년도 졸업생일동	2,100,000
강문순	150,000
경찰행정학과 재학생 모임	3,685,000
계명대 총동창회	27,000,000
계명대학교 태권도후원회	300,000
고진애	300,000
곽수영	100,000
곽승호	200,000
권순정	120,000
김명호	120,000
김명희	200,000
김병무	120,000
김상호	120,000
김선희	100,000
김세련	120,000
김연하	200,000
김영미	100,000
김영오	150,000
김영희	100,000
김용백	120,000
김은주	400,000
김은주	100,000
김은주	300,000
김인숙	120,000
김초자	10,000,000
김혜정	100,000
나문박	120,000
나이스전산정보시스템	120,000
나인재	100,000
나재천	200,000
마사커피	5,000,000
마영건	120,000
박상형	120,000
박석순	120,000
박성환	120,000
박영숙	400,000
박준환	120,000
박해구	120,000
박현숙	120,000
방경환	120,000
배관호	120,000
배장한	120,000
배충현	100,000
배태성	120,000

생물학과	250,000
식물생리생화학연구실	
서동출	100,000
석사동문회	300,000
성문숙	200,000
심봉헌	120,000
심재복	120,000
안명환(85학번 동기회)	1,000,000
양두상	120,000
양세정	400,000
오봉익	120,000
오석연	500,000
우순열	300,000
우재호	180,000
육심만	2,000,000
윤경식	100,000
윤옥주	2,000,000
윤은경	1,180,000
윤진호	100,000
의과대학 동문교수 장학회	11,364,000
이금숙	120,000
이덕자	100,000
이동우	10,000,000
이병철	600,000
이상석	120,000
이소정	180,000
이수락	120,000
이승봉	120,000
이영춘	120,000
이재근	1,000,000
이재원	120,000
이종만	300,000
이주연	120,000
이준욱	120,000
이지영	500,000
이찬우	120,000
이화연	380,000
임상표	500,000
장봉학	120,000
장재봉	120,000
장정애	400,000
전미향	100,000
전정희	1,000,000
전지혜	400,000
전현례	100,000
전형규	10,000,000
정은주	180,000
정재호	120,000
조성욱	180,000
조연숙	400,000
조정기	100,000
조정순	100,000
조현수	120,000
최재혁	120,000
태권도학과 동문회	1,000,000

704-701

계명대학교 평생교육원
대학원부속 2800

10 극립



□□□□ - □□□□

10 극립

여러분의 따스한 정성이
계명대학교가 세계속의 명문사학으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계명대학교 발전기금 기부 약정서

※ 해당되는 곳의 □에 'V'로 표시하고 세부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 부 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직장 및 부서					우편물수령지
주 소	자택				☐
	직장				☐
전 화	자택		휴대폰		
	직장		E-mail		
구 분	☐ 동문 ☐ 졸업 ☐ 재학 ☐ 기타	대학(대학원) (학과·전공)			
	☐ 교직원	소속 :			
	☐ 단체 및 기타		추천인	성명 :	
금 액	금 원정 (₩)			연락처 :	
기 부 목 적	☐ 일반발전기금				
	☐ 지정발전기금(대학·대학원, 학부, 학과 지정) :				

☐ 무통장입금	예금주 : 계명대학교 총장 ☐ 대구 086-04-000434-7 ☐ 국민 644-01-0032-361 ☐ 우리 1006-601-275545 ☐ 우체국 703454-01-000838 ☐ 농협 150077-51-001831 ☐ 기업 370-030302-01-018				
☐ 카드결제	http://fund.kmu.ac.kr에서 직접 입력				
☐ CMS입금 (자동이체)	매월이체금액	☐ 10,000원 ☐ 20,000원 ☐ 30,000원 ☐ 40,000원 ☐ 50,000원 ☐ 100,000원 ☐ 기타 (원)			
	후원기간	20 년 월부터 ☐ 1년 ☐ 3년 ☐ 5년 ☐ 10년 ☐ 기타 (년)			
	은행명			결제일	☐ 15일 ☐ 30일
	계좌번호				
	예금주 및 주민등록번호	(기부자와 다를 경우 작성)			
☐ 금여공제 (교직원에 한함)	월공제액	금 원정 (₩)			
	공제기간	20 년 월 ~ 20 년 월 (개월 공제)			

위와 같이 발전기금을 기부합니다.

20 년 월 일

기부자 :

(서명·인)

계명대학 총장 귀하

http://fund.kmu.ac.kr / E-mail : 70270@gw.kmu.ac.kr

Tel : 053-580-6322~4 / Fax : 053-580-6325

태권도학과 총동문회	600,000
한정안	200,000
화우회	1,000,000
황병석	300,000

한빛안과의원	5,000,000
한삼화	100,000,000
JSD코리아-최재욱	150,000
NEOTPC	200,000

하늘정원	400,000
호박추어탕	250,000
황소25시 구들방사우나	150,000

유관기관

(재)동산장학재단	110,000,000
(재)여산장학문화재단	4,000,000
(주)경북코치서비스	10,000,000
(주)대전일보사	1,000,000
(주)더모델즈	1,000,000
(주)삼정디지털정보	300,000
(주)솔지	23,000,000
(주)유신섬유	102,000,000
(주)케이피씨	4,260,000
(주)한국무역정보통신	5,000,000
(주)현대홈쇼핑	2,500,000
가이드컴	3,600,000
고령군	200,000,000
권영섭	3,000,000
금영(김호숙)	100,000
김&김치과	1,000,000
김도진	15,000,000
김현옥(TQIC)	200,000
나나피엔씨	100,000
달서구 태권도협회	500,000
대구광역시태권도협회	2,000,000
대구은행	1,105,800,000
대학교회	16,441,000
동원무역(백은숙)	100,000
동일상사(심응용)	200,000
디자인2015-조지혜	300,000
박동준	100,000
박주희(99그래픽)	1,000,000
삼공섬유(이덕기)	100,000
삼익정공주식회사	1,500,000
삼익THK(주)	200,000,000
서만석	6,000,000
수림섬유(심봉섭)	200,000
신동학	9,500,000
안동시	300,000,000
안전회계법인	1,000,000
영양군	100,000,000
영일기업(주)	500,000
예진태(국기인터내셔널)	100,000
우리은행	200,000,000
전재원(보성텍스)	200,000
정현분 (주)sktex	1,000,000
주식회사 케이티	2,000,000
지구문화사/메디시언(주병오)	500,000
최경호	619,300,000
태전휴먼시아어린이집	100,000
텍스비전21	1,000,000
토마스섬유(남우열)	200,000

계명후원의집

(주)온누리 여행사	300,000
강선장회도매	300,000
강창식당	300,000
개성보양탕	600,000
경주식육식당	300,000
계명안경	250,000
광나라	300,000
구룡포회도매	500,000
다빈치커피(계명대점)	600,000
대광부분정비 이성준 사장님	600,000
대구텔레콤(공짜나라)	500,000
대번초밥	400,000
드림디포문구센터	200,000
마마국시	300,000
먹골한정식	300,000
명덕꽃집	300,000
미광스포렉스	500,000
뱅[Vin]	600,000
보길도해물낙지	300,000
부천생갈비살	100,000
빨간우산애드컴	300,000
서울떡집	250,000
성희불고기가든	300,000
세인트웨스트호텔	1,800,000
소담들	300,000
송림골가마솥국밥	300,000
신승정패션디자인학원	600,000
아덴힐즈	400,000
아라쭈꾸미	200,000
아방궁	300,000
안동하회찜닭	500,000
예천참우골 생고기	150,000
오목대	100,000
오사카	600,000
우력1번지	300,000
원대복집	600,000
유끼초밥	150,000
유빈차명상 예절교육원	180,000
정우초밥	300,000
정통한정식 예당	600,000
제2대번회초밥	200,000
제주성산포갈치마을	600,000
좋은날	300,000
참한우소갈비집	100,000
팔공상강한우프라자	400,000
평화육남매왕족발	300,000
푸른자동차학원	600,000
하나투어(주)여행닷컴	100,000

기타

김동건	500,000
김숙자	100,000
김영준	350,000
배정희	300,000
손광석	400,000
손종호	500,000
안숙영	100,000
이각	500,000
이상열	600,000
이서영	5,000,000
정병원	120,000
정희경	200,000
조경래	478,000
중국어문학과 후원회	12,682,100
최덕기	250,000
한국패션산업 연구원	1,000,000
Richardson W. Schell	1,150,400

합계 : 3,639,945,000원



계명대학교
KEIMYUNG UNIVERSITY



704-7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2800번지
TEL. 053-580-5114 / FAX. 053-580-5454
<http://www.kmu.ac.kr>
2800 Dalgubul-Street, Dalseo-gu,
Daegu 704-701 Republic of Korea
TEL. 82-53-580-6022 / FAX. 82-53-580-6025

